

예배 회복을 위한 칼뱅의 신학과 실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이한진

예배 회복을 위한 칼뱅의 신학과 실제

지도 박경수 교수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한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2006년 8월

이한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박 경 수 교수 _____ 인

부 심: 임 희 국 교수 _____ 인

부 심: 주 승 중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6년 8월

감사의 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고전 1:27)은 곧 저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친절 한 가르침으로 지도하여 주신 박경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접하기 어려운 자료를 직접 찾아주시는 열정과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읽었던 수많은 자료들보다 교수님의 가르침과 열정이 제게는 더욱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짧게는 지난 2년, 길게는 지난 10년 동안 장신대에서 신학함을 일깨워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신학에 눈을 뜨게 하여주신 김인수 교수님, 임희국 교수님, 서원모 교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임희국 교수님은 보잘 것 없는 저의 논문에 깊이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공부를 위하여 늘 기도해주시며 뒤에서 힘이 되어주신 윤두호 목사님과 공릉제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대하시는 윤두호 목사님의 온유하신 성품은 저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울러 무궁교회 장달윤 목사님을 비롯하여 저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지도하여 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면 본 논문은 물론이요,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 관심과 기도로 저를 도왔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8월

이한진

목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자료의 문제 및 연구 방법	3
II. 칼뱅의 예배신학	5
A. 말씀론	5
1. 예배의 유일한 표준 - 성경	5
2.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 설교	9
B. 성례론	14
1. 말씀의 표징과 인장 - 성만찬	14
2.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 성만찬	19
C. 기도론	24
1. 믿음과 신뢰의 열매 - 기도	25
2. 노래로 부르는 기도 - 찬송	30
D. 성령론	35
III. 칼뱅의 예식서 분석	42
A. 칼뱅 예식서의 역사적 위치	42
1. 루터의 예배전통	42
2. 츠빙글리의 예배전통	45
3.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전통	48
4. 제네바 예배전통	51
B. 말씀의 예전	56
C. 성만찬 예전	64
D. 회중찬송	74
IV. 결론	80
A. 요약	80
B. 제언	82
참고문헌	85

I. 서론

A. 문제제기

교회의 교회됨, 곧 참된 교회의 표지(標識)를 칼뱅은 예배에서 찾았다. 그가 교회의 표지로 제시하는 말씀과 성례는 곧 예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뱅이 바라본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다. 그는 1543년에 발표한 『교회 개혁의 필요성』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이라는 글에서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공격하면서 교회의 예배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주의자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들의 총체적인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예배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배가 시행된다면, 성자(聖者)의 형상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죽은 사람의 유골에 신령한 영예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예배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싫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랜 교회의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자라고 욕설을 퍼붓습니다.¹⁾

로마가톨릭교회는 종교 개혁가들이 교회의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자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로마가톨릭교회야말로 우상숭배자라고 폭로한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標識)를 교회의 예배에서 찾았던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린 로마가톨릭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로서의 칼뱅은 그 무엇보다 교회의 교회됨을 되찾기 위하여 예배의 개혁을 중요하게 여겼다.

칼뱅이 예배의 개혁을 주장하였지만,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대체할 새로운 예배를 창안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 개혁의 기준은 언제나 순수했던 사도시대의 예배였기 때문이다.²⁾ 1542년 그가 작성한 예배 예식서

1) John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London: SCM Press, 1953), 188.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의 소제목이 “고대교회의 모범을 따라”(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Ancient Church)라는 사실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칼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순수성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예배의 각 부분을 성경에 의해 검토하며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므로 칼뱅이 목표하였던 예배의 개혁은 성경이 지시하는 예배로 되돌아가는 예배의 회복이었다.

1988년 윌리엄 부스마(William Bouwsma)가 『칼뱅』(*John Calvin: A Sixteen Century Portrait*)이라는 책에서 신학자로서의 칼뱅 대신 수사학자로서의 칼뱅을 그려낸 이후 최근의 칼뱅 연구는 수사학자로서의 칼뱅, 주석가이자 설교자로서의 칼뱅, 목회자로서의 칼뱅 그리고 교회 박사로서의 칼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칼뱅을 연구하고 있다.³⁾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논문은 예배 회복자로서의 칼뱅을 제시하면서 보다 입체적인 칼뱅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개혁교회의 예배전통을 형성하는 칼뱅의 예배 회복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의 개혁교회 예배가 어떠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칼뱅의 예배신학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칼뱅은 예배에 대하여 다양한 진술을 하였지만 말씀의 선포, 성례 그리고 기도를 하나의 통일된 논문으로 제시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칼뱅의 예배신학을 재구성하는 연구는 그가 어떠한 신학적 입장에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꿈꾸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 연구는 칼뱅이 제네바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직접 작성하였던 예배 예식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칼뱅이 제네바 교회의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예배 예식서야말로 칼뱅이 의도했던 예배 회복의 방향과 방법을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관성이 있다. 곧 예배 회복을 위한 칼뱅의 신학과 실제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연구가 예배 회복을 위한 칼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라면, 두 번째 연구는 칼뱅이 그의 예배신학을 구체적인 16세기 제네바 교회

2) Janos Pásztor, "Calvin and the Renewal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The Reformed World* 40-2 (June 1988), 910.

3) 박경수,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김인수 편,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리고 신학』 (서울: 이형기교수은퇴기념논문편찬위원회, 2004), 324-43.

에서 어떻게 실현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B. 자료의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두 가지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의 문제와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첫째로, 칼뱅의 예배신학을 재구성하기 위한 자료의 문제 및 연구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칼뱅의 신학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의 『기독교강요』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신학자로서의 칼뱅에서 수사학자, 성경주석가, 설교자 혹은 목회자로서의 칼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별히 칼뱅은 예배의 개혁이 사도시대의 예배가 간직하고 있었던 순수성의 회복이며 이를 위하여 예배는 어디까지나 성경의 빛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예배신학을 재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의 성경이해를 보여주는 자료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그가 직접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의 『성경주석』과 설교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선택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독교강요』와 그의 편지도 사용하였다.⁴⁾ 칼뱅의 『성경주석』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선택하였을 때의 장점은 칼뱅이 예배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는 성경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칼뱅이 “성경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을 꿈꾸었다고 했을 때 그가 주장하는 “성경에 근거한”이라는 용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칼뱅의 저작들에 나타난 예배신학의 단편들을 하나의 구조물로 완성하기 위하여 그가 예배와 관련하여 어떠한 성경구절을 강조하였고, 그 구절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였는지에 집중하였다.

둘째로, 칼뱅의 예식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을 분석하기 위한

4) 칼뱅을 현대적 의미의 조직신학자라기보다는 성서신학자라고 평가하는 로널드 월레스는 칼뱅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칼뱅의 『성경주석』을 주로 활용한 바가 있다.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정장복 역,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저자서문.

연구방법 및 자료의 문제이다. 칼뱅은 그의 예식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을 1542년 제네바에서 출판하였다. 그리고 3년 뒤인 1545년에는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칼뱅의 예식서를 분석하는 본 논문은 제네바 판 예식서와 슈트라스부르크 판 예식서 두 가지를 모두 본문으로 선택하였다. 아울러 루터의 『미사예식서』 (*Formula missae*), 츠빙글리의 예배 예식서 『말씀의 예전』 (*Liturgies of the Word*)과 『주님의 만찬의 작용 또는 용도』 (*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부처의 예배 예식서 『시편찬송, 완전한 교회 예전을 포함하여』 (*Psalter, with Complete Church Practice*)도 칼뱅의 예식서와 비교 및 대조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⁵⁾ 칼뱅의 예식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본 논문에서 재구성한 그의 예배신학이다. 교회의 예배를 사도시대의 예배로 회복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칼뱅이 자신의 예배신학을 어떻게 구체적인 제네바 교회의 예배에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칼뱅의 예식서를 차례대로 그의 예배신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칼뱅의 예배신학이 그의 예식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면과 여전히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보류된 면을 각각 보여준다. 그러므로 칼뱅의 예배신학적 관점으로 그의 예식서를 분석하는 방법은 칼뱅이 제네바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했던 일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미루어 두었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비교 및 대조의 방법도 사용하였다. 그의 예식서를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부처의 예식서와 비교 및 대조하는 방법은 칼뱅의 예식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며 나아가 개혁교회 예배전통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5)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예식서 번역본을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1)에서 사용하였다.

II. 칼뱅의 예배신학

A. 말씀론

1. 예배의 유일한 표준 - 성경

칼뱅에게 있어서 예배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이다.⁶⁾ 칼뱅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곧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⁷⁾(요 4:22)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⁸⁾ 그러므로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 하에서 칼뱅은 16세기 제네바의 자유주의자들(Libertine)과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를 모두 공격한다. 오직 성경을 교회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말씀”을 제외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마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제에 의한 통치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칼뱅은 『기독교강요』 1권 9장에서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반박한다. 칼뱅은 그들의 특징이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며 성경 읽기를 전적으로 멸시하는 것이요, 나아가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칼뱅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란 과연 어떠한 영이기에

6) 칼뱅이 때때로 고대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토무스를 언급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표준은 성경이었다. Auguste Lecerf, "The Liturgy of the Holy Supper at Geneva in 1542,"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ed., Richard C. Ga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208.

7) 이 논문에서 성경인용은 『성경전서』(개역개정판)를 사용하였다.

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역, 『기독교강요』(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1권, 6장, 4절. (이하 John Calvin, 『기독교강요』, 1, 6, 4로 표기.)

성경의 교리를 유지하고 천한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을 그들은 반대해야 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⁹⁾ 또한 그들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후 3:6)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죽이는 문자”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칼뱅은 성경말씀이 성령의 내적 조명(照明)으로부터 떨어진다면 그것은 죽이는 문자가 되지만, 그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시 19:7)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므로 영만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배격된다.

한편 칼뱅은 로마가톨릭교회가 교황의 명령을 절대시하면서 성경을 무시한 결과 예배를 더럽혀 왔다고 지적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율법에 대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성경구절(신 17:8-10)을 인용하며 교황의 명령을 성경 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학개 선지자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가 드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학 2:10-14) 제사장은 오직 ‘율법의 해석자’일 뿐인데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게 되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더럽혀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한 마디로 교회 안에서 행사되는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 뛰어난 점을 보유해야 하고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것도 거기에 섞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것을 규정해야 한다.”¹¹⁾ 칼뱅은 교회가 성경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주장도 반박한다. 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구절(엡 2:20)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성경은 그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교회가 성경의 목록을 확정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건의 의무로서 교회는 조금도 주저 없이

9) 위의 책, 1, 9, 1.

10) 위의 책, 1, 9, 3.

11) John Calvin, *The Calvin Commentary*,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존 칼빈 성경주석』 (서울: 성서원, 1999), 학 2장 14절 항목. (이하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학 2:14로 표기.)

성경을 존경하는 것”이었을 뿐이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승인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¹²⁾

오직 성경을 예배의 유일한 표준으로 받아들였던 칼뱅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를 강조하였다.¹³⁾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교훈한다. “우리는 자기의 공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고르거나 찾아서는 안 되며, 예외 없이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¹⁴⁾ 이 점에서 칼뱅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세르베투스(Servetus)와 일부 재세례파를 반대한다.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생활에 대한 약속만을 주었을 뿐 영생의 희망은 주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¹⁵⁾ 이에 대해 칼뱅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성경도 육적인 번영과 행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모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둔다는 점이다. 셋째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그들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점이다.¹⁶⁾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영생의 희망을 제시하는데, 그 희망은 자신의 공로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다. 그러므로 칼뱅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5)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셨을 때는 물론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에 비추었다고 설명한다. 역으로 구약시대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빛도,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비취는 빛도 그 출처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이다.¹⁷⁾

1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1, 7, 1-2.

13) 물론 칼뱅에게도 선호하는 성경본문이 있었다. 그것은 로마서, 시편, 마태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그리고 창세기였다. 그러나 칼뱅이 그의 예배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John 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황승룡, 이용원 역,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9), 106.

14) Ronald S.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167에서 재인용.

1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2, 10, 1.

16) 위의 책, 2, 10, 2.

1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요 9:5.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하에서 통일성과 연속성을 이루는 성경을 유일한 예배의 표준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예배는 교회나 전승 및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인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는 결론에 이른다. 칼뱅은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합 2:20)라는 구절의 ‘성전’이 ‘성소’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만일 ‘성전’을 ‘하늘’로 해석하면 하박국 2장 20절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지상의 어떤 것을 예배하는 우상숭배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 된다. 칼뱅은 이러한 해석이 틀렸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박국 선지자의 의도에 더욱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성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소에는 성막의 제도를 지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만일 ‘성전’을 ‘성소’로 해석하면 하박국 2장 20절은 성경말씀의 지도를 받아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행하는 인간의 모든 예배행위는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¹⁸⁾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나아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칼뱅은 우둔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깨달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설명한다.¹⁹⁾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어야 한다.

인간이 예배하는 대상은 언제나 성경이 보여주는 참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한다. 칼뱅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마 15:9)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교훈을 대치할 경우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²⁰⁾ 그

18) 위의 책, 합 2:20.

1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 33.

20)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마 15:9.

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하며,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예배의 새로운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²¹⁾ 그런데 이때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다. 칼뱅은 인간의 마음이 어둡고 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인간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헛된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照明)이 없이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²²⁾ 칼뱅은 그의 설교에서 인간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는 우리가 듣고 읽은 모든 내용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²³⁾ 그러므로 인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예배의 모든 순서가 성경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 설교

칼뱅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합법적인 순서로서 “말씀의 선포”를 그 첫 번째로 지적한다.²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칼뱅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미 4:2)는 구절을 합법적인 예배를 규정하는

21) 예배의 모든 순서와 방식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께서는 진정한 의의 골자 전체와 그의 위엄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국면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거룩한 말씀에 충실히 포함시키며 분명히 표현하셨다.” 그러나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명령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0, 30.

22) 위의 책, 3, 2, 33.

23)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1 Timothy*, 김동현 역,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해』(상) (서울: 엘멘출판사, 2002), 404.

24) 칼뱅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는 구절을 사도시대 교회의 관습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며 구제하는 것이 정작이 되었다.”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44.

말씀으로 이해한다.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위하여 한 장소로 모였을 지라도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뱅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말씀이 다시 우리로부터 떠나가면 비록 일종의 신의 예배형태는 남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순수한 예배는 이미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⁵⁾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칼뱅은 이것을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사용하는 것에 비유한다.²⁶⁾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며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²⁷⁾

칼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신 5:25)고 말한 장면을 주석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지 않고 말씀의 교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된다.²⁸⁾ 또한 그는 설교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옹호하기 위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성경]으로 만족해야 마땅하다면, 날마다 설교를 들을 필요가 어디 있으며, 목회자의 직분 그 자체의 의의가 무엇이겠는가?”라고 질문한 뒤, 스스로 답하기를 “바울은 교사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임무를 할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빵을 갈라서 자기 아이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라고 하였다.²⁹⁾ 칼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를 통해 전하셨던 실제적인 성경의 예를 지적하기도 한다. 곧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셨던 장면(행 10:3-6)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뒤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구원의 교리를 듣게 하셨던 경우(행 9:6)이다.³⁰⁾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25)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미 4:2.

2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3, 1.

2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사 55:11.

28) 위의 책, 신 5:25.

29) 위의 책, 답후 2:15.

3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3, 3.

께서 모든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이용하신다.

칼뱅이 이처럼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교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파커(T. H. L. Parker)는 분명한 어조로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은 확정적이고 주권적인 반면에 설교는 파생적이고 종속적이라고 지적한다. “명백히, 성경이 설교에 맞추어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설교는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히 설교의 영광이란 파생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로서의 설교의 겸손함에 있다.”³¹⁾ 그러므로 설교에 앞서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의 봉독이 있어야 한다. 칼뱅은 예수의 공생애가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점(눅 4:16)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는 “당시에는 살아있던 성경 낭독이 교황 밑에서는 희미해져 갈 뿐 아니라, 칼과 불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남은 것은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소리의 영창이 있을 뿐인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다”라고 로마가톨릭교회를 공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봉독하기 위하여 일어서심으로써 가르치는 일을 겸손과 존경으로 시작하려는 뜻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한다.³²⁾ 말씀의 선포자요 해석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을 성경말씀에 대한 겸손과 존경으로 시작하였다면 그것은 모든 설교자가 따라야 할 분명한 모범이다.

칼뱅은 디모데전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설교를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자신의 의도를 걸치레하지도, 청중의 귀를 간지럽히지도 않고 회중의 유익과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둘째는 잘못된 교리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헛된 수다에 몰두하는 것이다. 셋째는 회중의 영혼을 거짚으로 중독 시키고, 그 정신을 수많은 환상으로 가두어 신자들을 교화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미신으로 향하게 하는 설교이다.³³⁾ 또 다른

31) 칼뱅에 의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를 성경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 즉,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김남준 역, 『칼빈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3), 44-45.

3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눅 4:16.

33) Richard Stauffer,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성서연구사, 1994), 66-67에서 재인용.

곳에서 칼뱅은 두 번째의 경우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공을 놀리면서 기교를 부리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심심풀이로 삼는다”고 공격하며, 세 번째의 경우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거짓된 가면을 통해서 제시한다”고 비판한다.³⁴⁾ 성경의 말씀에 종속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설교가 성경의 확실한 기초 위에서 회중의 유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칼뱅은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에게만 아니라 회중에게도 바른 태도를 요구한다. 그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학개 1:12)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칼뱅은 이 구절이 설교를 듣는 회중의 태도를 밝혀준다고 강조한다. 회중은 자신에게 들리는 설교를 설교자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보다 설교된 말씀이나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더 이상 탐구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³⁵⁾ 그러므로 예배의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법적인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회중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설교자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은 예배자의 순종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칼뱅은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회중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먼저 칼뱅이 설교자의 설교활동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함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으로 그가 에스겔서를 주석

34)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고후 1:19.

35) 위의 책, 학 1:12.

한 장면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에스겔 1장 1-2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귀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효과는 성령의 권능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태양의 광채가 소용없듯이,” 성령께서 설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인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³⁶⁾ 칼뱅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히 4:12)라는 구절을 설명할 때 이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칼뱅은 이 구절이 성경을 뜻하지만 동시에 설교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인간의 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음성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효력의 모든 것은 성령에게 돌려져야 한다.”³⁷⁾ 그렇다고 성령께서 말씀 선포와 동떨어져서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선포하신다.

또한 칼뱅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 회중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성경구절(신 29:3-4)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이나 눈이나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료한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³⁸⁾ 칼뱅은 사도들을 예로 들어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사도들은 가장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충분히 받았지만, 예수는 성령께서 임하시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14:26) 칼뱅은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사도들에게 “이미 받은 교훈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르칠 진리의 영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선생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⁹⁾ 하나님은 사람들을 임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가르치도록 하실 뿐

36) 위의 책, 겔 2:1-2.

37) 위의 책, 히 4:12.

38) 위의 책, 신 29:4.

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⁴⁰⁾

설교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종속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이므로 설교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선포이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회중이 설교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예배에 있어서 설교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설교자와 회중 모두를 통치하시는 행위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설교자와 회중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왕국은 힘이나 세속적인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⁴¹⁾

B. 성례론

1. 말씀의 표징과 인장 - 성만찬

칼뱅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⁴²⁾ 그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말씀 선포와 공중 기도와 함께 성만찬이 사도시대 교회의 확고한 질서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칼뱅은 매 주일 성만찬을 집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성만찬이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3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2, 2, 20.

40) John Calvin, 『칼빈의 디모테전서 강해』 (상), 223.

41)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Micah*, 강서문 역, 『칼빈의미가 강해』 (서울: 도서출판 잠언, 1996), 267.

42) 팔레마 웰러는 칼뱅이 설교중심의 예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례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육체를 지닌 인간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Pamela Ann Moeller, *Calvin's Doxology: Worship in the 1559 Institutes with a View to Contemporary Worship Renewal* (Pennsylvania: Pickwick Publication, 1997), 158. 칼뱅은 성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교회의 정규적인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를 취임시킬 때 안수하는 것을 성례라고 부르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규적인 성례에 포함시키지 않을 뿐이다.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4, 20. 칼뱅의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둘 때 교회에서 매주일 시행되는 “예배”를 논의하는 이 논문에서 교회의 정규적인 예배 요소로서의 성례는 세례보다도 성만찬을 주로 지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그의 생각을 반영해 준다. 이뿐 아니라 칼뱅은 고대 교회법에서 “끝까지 남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문란케 하는 자로서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구절과 안디옥 회의의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도 성만찬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허물을 고치기까지 교회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근거로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성만찬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칼뱅이 내린 성례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만찬이 필수적인 예배의 한 요소라는 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성례를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각각 정의한다. 곧 성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며, 동시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⁴⁴⁾ 칼뱅에게 있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순종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성례로서의 성만찬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의 외적인 표이며, 인간 편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충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 선포는 성만찬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요, 곧 설교와 성만찬은 참된 예배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성례로서의 성만찬이 배제된 설교는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없는 성만찬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칼뱅은 예배의 요소로서 말씀 선포와 성만찬을 언제나 함께 지적한다.⁴⁵⁾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주장하는 칼뱅은 구약의 옛 언약에도 성례적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례적 역할로 해석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그분의 백성을 더 깊이 감동시키려고, 그리고 보다 그들의 마음 속 깊이 침투해 들어가시려고 …… 외부적인 상징들로 그들의 눈을 집중시키고 계시기 때문

43) 위의 책, 4, 17, 43-44.

44) 위의 책, 4, 14, 1.

45)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행 2:42. 참고.

이다.”⁴⁶⁾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옛 계약 하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징조를 주셨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 가지 징조를 주셔서 그의 소명을 확신하게 하셨고, 아담에게는 생명의 나무를, 노아에게는 하늘의 무지개를,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기둥과 불뱀을 주셨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하시는 기적을 주셨다.⁴⁷⁾ 그것이 기적일 수도 있고, 절기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예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인간의 순종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구약시대 옛 언약의 모든 표징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 완성되었다. 칼뱅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히 10:1)라는 구절을 회화적 기법을 사용한 은유라고 설명한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윤곽으로 예시하였지만, 복음은 생생하고 실감나게 인쇄된 색깔로 표현된 것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칼뱅은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7)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신약의 성례와 구약의 성례적 역할을 분명하게 대조시킨다. “처음에는 목탄을 사용해서 대강 넓게 스케치하는 것같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도 율법 아래서는 처음 스케치하는 것과 같이 세련되지 않았으나 우리의 성례들 속에서는 참 모습을 보여주셨다.”⁴⁹⁾ 그러므로 신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옛 언약의 성례적 역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칼뱅은 바울이 구약의 성례적 역할을 “그림자”라고 부르는 의도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새 언약에 속한 성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이상 구약의 의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⁵⁰⁾

신약의 성례가 구약의 모든 성례적 역할의 완성이지만, 그렇다고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이점에서 칼뱅은 성만찬을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여겼던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미사의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

46) 위의 책, 창 15:4.

47) 위의 책, 사 38:7.

48) 위의 책, 히 10:1.

49) 위의 책, 골 2:17.

5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4, 22.

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며 성도들은 그 봉헌에 참여함으로써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⁵¹⁾ 칼뱅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 수많은 전통들을 추가함으로써 율법이 지시하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 역시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그들의 전통을 덧붙임으로써 성만찬을 더럽혔다고 보았다. 그는 “가톨릭교회 내에서는 그림자가 유대교 아래에서보다도 더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각종 호화로운 예식으로 교회에 부담을 지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앗아가는 것이다”라고 공격하였다.⁵²⁾ 그는 미사의 오류를 다음의 5단계로 나누어 지적한다.

첫째로 칼뱅은 미사가 그리스도에게 참을 수 없는 모독과 모욕을 가한다고 공격한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을 사람들이었으므로 그 제사장직도 영원할 수가 없었으나, 그리스도는 영생하시는 분으로 뒤를 이을 대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로마가톨릭교회는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대체사장으로서의 영예와 특전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⁵³⁾ 둘째로 칼뱅은 미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매장하는 힘이 있다고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구약시대 희생제물로 바쳐진 황소와 송아지와는 달리 영원히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로마가톨릭교회는 미사를 통해 매일 수십만 번씩 희생을 드려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으로서의 수난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⁵⁴⁾ 셋째로 칼뱅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죽음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미사가 드려지는 곳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은 미사를 행할 때마다 새로운 희생과 새로운 용서의 약속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새롭게 열리는 죄 용서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단 한 번의 고난으로 영원한 죄 용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⁵⁵⁾ 넷째로 칼뱅은 미사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간다고 지적한다. 미사는 그 안에 있는 희생제사가

51) 위의 책, 4, 18, 1.

5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요 4:23.

5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8, 2.

54) 위의 책, 4, 18, 3-4.

55) 위의 책, 4, 18, 5.

인간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인간에게서 빼앗아 버린다.⁵⁶⁾ 마지막으로 칼뱅은 미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바꾸어버린다고 공격한다.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써 인간은 성만찬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사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로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인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생각을 갖게 된다.⁵⁷⁾

칼뱅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인 성만찬은 로마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다른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의 언약에 붙은 “부록”과 같다.⁵⁸⁾ 그러나 성만찬은 구약의 옛 계약에 속한 모든 성례적 역할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한다.⁵⁹⁾ 칼뱅은 이러한 의미로 성만찬을 말씀의 표징(signs)과 인장(seals)이라고 표현한다. 칼뱅은 성만찬이 말씀의 표징이라는 것을 인간의 믿음을 위한 기둥에 비유한다. 이 비유에서 건물은 믿음을,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둥은 성례(성만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건물이 기둥 없이 기초만 가지고 세워질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기둥으로서의 성례가 필요하다. 또 다른 비유로 칼뱅은 성례(성만찬)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말씀에 의한 것보다 더 명백하게 확인하시기 때문이다.”⁶⁰⁾ 한편 칼뱅이 성만찬을 말씀의 인장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주신 것이 그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설명하는 바울의 해석(롬 4:11)에서 연유한다. “거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칭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56) 위의 책, 4, 18, 6.

57) 위의 책, 4, 18, 7.

58) 위의 책, 4, 14, 3.

59) 그러므로 칼뱅은 세례와 성만찬으로 충분한 성례적 역할을 다른 제도와 형식에서 찾으려는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는 한편, 제네바의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이 성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0) 위의 책, 4, 18, 7.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언약에 날인하는 인으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명백하게 주장한다.”⁶¹⁾ 그러므로 성만찬은 반드시 선행하는 언약이 있어야 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적절하게 지키려면, 여러분은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여야 한다.”⁶²⁾ 그러할 때 성만찬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표징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합법적인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의 역할을 결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장면(요 20:21-22)을 칼뱅이 어떻게 주석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말씀과 성례와 성령의 관계를 분명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숨을 내어 쉬는 외형적인 상징과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말씀과 외적인 상징이 결합할 때 말씀의 표징과 인장으로서의 성만찬은 효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위대한 효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강조한다.⁶³⁾ 여기서 칼뱅은 성령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례가 결합되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성례가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내적 교사인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다.”⁶⁴⁾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자와 회중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또한 성령의 역사로 성만찬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 그 말씀을 확증하며,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신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 성만찬

앞에서 말씀의 표징과 인장으로서 성만찬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인간의 믿음을 보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칼

61) 위의 책, 4, 18, 5.

6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고전 11:26.

63) 위의 책, 요 20:22.

6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4, 9.

뱡에 의하면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심령 속에 주입된 자질(資質, quality)로 정의한 중세 신학자들을 공격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있을 뿐이지,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한 방울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발견될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풍부한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궁핍과 부족을 위한 구체책이 없다.”⁶⁵⁾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용,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⁶⁶⁾ 이러한 칼뱅의 주장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는 “그리스도와 의 신비한 연합”으로서의 성만찬으로 대답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와 의 신비한 연합”을 가지가 나무에 접붙인 것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다시 말해 가지가 나무에 접붙이여 뿌리와 나무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양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⁶⁷⁾ 여기에서 칼뱅은 세례와 성만찬의 역할을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며 신앙생활의 입문”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성만찬은 “일종의 계속되는 양식”이다.⁶⁸⁾ 이를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비유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인간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접붙이시고, 성만찬을 통하여 뿌리와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⁶⁹⁾ 이와 같이 칼뱅은 인간의 심령 속에 주입된 자질로서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정기적인 성만찬의 참여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례 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삶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⁷⁰⁾

65)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롬 5:15.

6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1, 1.

6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롬 6:5.

6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8, 19.

69) 위의 책, 4, 17, 1.

70) 칼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는 구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일정한 날에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명령으

칼뱅이 성만찬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와의 신비한 연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있었던 성만찬 논쟁을 언급해야 한다.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의 입장 차이는 성경주석적 차이로 시작하였다. 곧 그리스도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눅 22:19)는 구절에 대해서 루터는 “이다”라는 구절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였고, 츠빙글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구절에 따라 “이다”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성경주석적 차이는 곧 그리스도 몸의 위치에 대한 차이로 나아갔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의 떡 안에, 혹은 함께, 혹은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반발하였다.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루터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온 세상에 편재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속성의 교류를 통하여 편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반면,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온 세상에 편재되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인성만큼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고 강조하였다.⁷¹⁾ 결국 루터와 츠빙글리는 성만찬에 있어서 신학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529년 10월 마르부르크회담에서 결별하고 만다.

칼뱅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눅 22:19)는 구절에 대해서 먼저 문자적 해석의 오류를 지적한다. 칼뱅은 이 구절을 성례전적인 표현이라고 정의하면서, 성례전적인 표현이란 상징적 용법이라고 설명한다. 중생의 씻음을 세례로,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반석으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다고 해서 곧 세례가 중생의 씻음도 아니고, 반석이 그리스도일 수도 없으며 비둘기 역시 성령은 아니다. “건전하고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성만찬 제정의 말씀] 성례적 양태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주도할 것이다. 따라서 몸이라고 부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상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⁷²⁾ 그리스도 몸의 위치에 있어서도 칼뱅은 츠빙글리와 같이 유

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합법적인 훈련의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중기도를 드리는 것’을 지적한다. 위의 책, 2, 8, 29; 2, 8, 34.

71) 로렌스 스투키는 루터의 성만찬 이해를 “편재적 임재”(Ubiquitous Presence)로, 츠빙글리의 성만찬 이해를 “기념주의”(Memorialism)로 각각 정의하며 양자를 비교하기도 한다. Laurence Hull Stookey, *Eucharist*, 김순환 역,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74-79.

한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때로부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주장한다.⁷³⁾ 그러나 칼뱅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눅 22:19)는 구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끝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의 단순한 의미를 설명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은 헛되고 효력이 없는 상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과 피의 동참자라는 점을 덧붙여야겠다.”⁷⁴⁾ 칼뱅은 그리스도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성만찬의 떡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장은 반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눅 22:19)고 약속하셨기에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영혼의 훌륭한 양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다.⁷⁵⁾ 그리고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한 “놀라운 교환”이라고 주장한다.⁷⁶⁾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신령한 양식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한 “놀라운 교환”의 방법에 대해서 칼뱅이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 것은 아마도 아래의 진술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주셨고 그리스도도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죽을 성질을 공유하게 되심으로써 그의 신적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 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자기가 받으시고 자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때,

7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마 26:26.

7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26. 이 점에서 성만찬논쟁에 대하여 칼뱅이 츠빙글리와 함께 스위스 종교개혁의 전통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루터와 칼뱅 사이에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접촉점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일 수는 없다. 칼뱅은 그의 『성만찬에 대한 소논문』(*Short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 and only Saviour Jesus Christ*)에서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의 간격에 다리를 놓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칼빈연구』 제 3집 (2005), 209-13.

74)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마 26:26.

75) 위의 책, 고전 11:24. 로렌스 스투키는 칼뱅이 성만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의미로 칼뱅의 성만찬 이해를 “능력주의”(Virtualism) 혹은 “역동적 능력주의”(Dynamic Virtualism)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Laurence Hull Stookey,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79-80.

7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2.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삼켜 없애실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가 입으셨던 우리의 이 썩을 육을 영광과 썩지 않음으로 입히실 때에 그는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이다.⁷⁷⁾

칼뱅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할 때 그 의미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입된 자질이라는 의미도 아니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인간의 몸 사이에 본질의 혼합(mixture of substances)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아니다. 칼뱅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의미로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다.⁷⁸⁾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인간의 몸 사이에 본질적인 혼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입되지도 않으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통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칼뱅의 대답은 “하나님의 신비”이다.⁷⁹⁾ 그는 1555년 8월 8일 피터 마터(Peter Martyr)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이해력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에 감탄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⁸⁰⁾ 또한 칼뱅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2)는 구절을 궁극적으로 성만찬의 신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적 연합에 대한 감탄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스도와 인간의 연합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칼뱅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칼뱅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합의 본

77) 위의 책, 4, 17, 4.

78)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엡 5:31.

79) 데니스 탐브렐로는 칼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지적한 곳이 『기독교강요』(1559년 판)에만 최소한 7번이라고 조사했다.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89.

80) 위의 책, 89에서 재인용.

질을 알아내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⁸¹⁾ 인간은 성령의 역사를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식이 성만찬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와 인간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전 과정을 신비한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 집중되기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분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밖에 계신 분, 아니 우리에게서 먼 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는 이룰때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분이 되고 만다.”⁸²⁾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서 믿음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칼뱅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성”은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으며, 인간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한 놀라운 교환의 과정에서 그 이전보다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사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과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사랑”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⁸³⁾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성만찬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하며 그들의 믿음에 인을 치신다. 뿐만 아니라 성만찬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참여자들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혼의 양식으로 나누는 영적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며 바로 이러한 신비적 연합에 도달함으로써 예배는 비로소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C. 기도론

81)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엡 5:32.

8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1, 3.

83) 위의 책, 4, 17, 42. 칼뱅은 그의 예식서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찬정지(ex-Communio)를 명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 III, C. “성만찬 예전”을 참고하라.

1. 믿음과 신뢰의 열매 - 기도

칼뱅은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경외”(fear)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trust)하도록 한다.⁸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인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인치고 인간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끄신다. 이로써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⁸⁵⁾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란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러러 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⁸⁶⁾ “신앙은,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기도로 변지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잡아 누리도록 거기에 손을 뻗게 한다.”⁸⁷⁾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⁸⁸⁾으로 꼽는 칼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계시기에 인간이

84) 위의 책, 1, 10, 2.

85) 팔레마 벨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만남, 그리고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Pamela Ann Moeller, *Calvin's Doxology: Worship in the 1559 Institutes with a View to Contemporary Worship Renewal*, 122.

8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1. 칼뱅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 20:3)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곧 양모(adoration), 신뢰(trust), 기원(invocation) 그리고 감사(thanksgiving)이다. 위의 책, 2, 8, 16.

8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마 21:21.

8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29. 칼뱅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무용론을 배격한다. 기도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상기시켜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기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줄거나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칼뱅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기도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소개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으면서까지 열심히 기도했다.(왕상 18:42) 이에 대해서 칼뱅은 엘리야가 자신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이 태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렸다고 설명한다.⁸⁹⁾

한편 기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칼뱅은 성자(聖者)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로마가톨릭교회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자(聖者)들의 공로를 내세웠다. 그들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성자(聖者)들에게 특별한 기능을 돌렸으며, 어떤 이들은 특정한 성자(聖者)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정하기도 하였다.⁹⁰⁾ 칼뱅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이러한 행태가 예레미야 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한다.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시 50:15. 칼뱅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기도를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은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89) 칼뱅은 기도가 기도하는 인간에게 주는 유익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1)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인간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듯 하기 위해서 (2)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 인간이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5)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3.

90) 위의 책, 3, 20, 21-22. 칼뱅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자숭배에 대해서 “자들이 전능하신 분에게 구하는 그것을 성 클라우디우스(Saint Claudius)에게 구하며, 주기도를 카더린(Catherine)의 상(象)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시 50:15.

지자가 공격했던 유대인들의 우상숭배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로마가톨릭교회가 성자(聖者)들의 신상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서만 구원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조차도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을 참되신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고백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폭로했던 유대인들의 죄악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듯이, 로마가톨릭교회가 각자의 수호신을 정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상숭배라는 분석이다.⁹¹⁾ 칼뱅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 16:24)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기꺼이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여기저기서 수많은 중보자들을 불러 우리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⁹²⁾

결론적으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확고해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게 된다. 이때 기도의 중보자는 어떠한 족장이나 성자(聖者)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다. 만일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⁹³⁾ 칼뱅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7)는 예언을 율법시대에 오직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구별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⁹⁴⁾ 그리고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그 근거로 칼뱅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는 구절을 지적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출입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91) 위의 책, 램 2:28-29.

92) 위의 책, 요 16:24.

93) 칼뱅은 기도를 예배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기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칼뱅은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소개하는 그의 예배 예식서 제목을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이라고 하였다.

94) 위의 책, 사 56:7.

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큰 소리로 자랑할 수가 있다. 그런 까닭에 이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⁹⁵⁾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지만, 인간의 욕심과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기도까지도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칼뱅은 성경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지만 인간이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뱉는 모든 기도까지 현실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은 신앙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신앙이 지배하는 마음은 무분별하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상을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다.⁹⁶⁾ 이를 위해 칼뱅은 기도가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시 145:18)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과 ‘복종심’을 전제한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는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고 지적한다. 칼뱅에 의하면 시편의 위 구절이 가르치는 기도에는 교훈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거나 인정하는 범위 이상의 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⁹⁷⁾ 또한 기도가 성경에 근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성령이 바른 기도 양식을 가르쳐주시지 않는다면(롬 8:26)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에 반드시 위험한 일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⁹⁸⁾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활짝 열려진 기도의 문을 통과하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예배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도아래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경에 근거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한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

95) 위의 책, 롬 8:15.

96) 위의 책, 마 17:19-20.

97) 위의 책, 시 145:18-19.

9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34.

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⁹⁹⁾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 하는 자는 누구나 먼저 죄를 값없이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¹⁰⁰⁾ 기도가 회개로 시작한다는 것이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불신앙일 수는 없다. 오히려 칼뱅은 지속적인 회개가 인간의 믿음에 유익을 준다고 설명한다. 칼뱅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미 용서의 선언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삼하 12:13) 계속해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시 51:9)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주목한다. 다윗이 거듭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자리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소유한 성도들도 믿음을 유지하고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회개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¹⁰¹⁾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신다. 칼뱅은 이 두 가지를 ‘복음의 양면’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신다.¹⁰²⁾ 기도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는 함께 나타난다. 곧 인간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¹⁰³⁾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신다.

또한 “간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 칼뱅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의 구절은 간구와 감사,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99) 위의 책, 3, 20, 9.

100)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시 130:4.

101) 위의 책, 시 51:9.

102) 위의 책, 행 2:38.

103) 칼뱅은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도의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기도하기 위하여 인간은 주기도문의 양식을 따라야 하는데,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원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뒤의 3가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기도이다.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35.

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셔서, 우둔하고 태만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기 때문이다.”¹⁰⁴⁾ 이처럼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는 기도는 회개와 죄 용서의 확신으로 시작하여 간구와 감사의 기도로 마친다. 그런데 칼뱅은 ‘감사의 기도’에 특별한 중요성을 둔다. 그에 따르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지만 오직 감사의 제사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제사들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칼뱅은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된다고 선언한다.¹⁰⁵⁾

2. 노래로 부르는 기도 - 찬송

칼뱅은 기도를 말로 하는 기도와 노래로 부르는 기도로 구분하면서, 찬송을 기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기도를 말로 하든, 노래로 부르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쓰이는 말과 노래는 심령의 깊은 느낌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나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다.¹⁰⁶⁾ 칼뱅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사 29:13)라는 구절을 근거로 마음의 진실이 빠져버린 기도에 대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한다고 질책한다. 마음이 없이 혀와 입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식일 뿐이다.¹⁰⁷⁾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인간은 마음의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를 노래로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칼뱅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이다. 만일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여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는 음악의 도입을 찬성한다.¹⁰⁸⁾ 그러나 음악이 가사의 영적 의미에는 마음을 덜 기울이고 곡조에 인간의

104) 위의 책, 3, 20, 28.

105)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히 13:15. 회개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기도의 순서는 칼뱅의 예배 예식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논문 III. “칼뱅의 예식서 분석”을 참고하라.

10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31.

10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사 29:13.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면 교회는 예배에 음악을 도입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적당한 정도를 지킨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확실히 대단히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의 존엄성에 합당치 못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¹⁰⁹⁾

칼뱅이 기도를 노래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 견해를 가졌는지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음악을 거의 수용하였던 것에 반하여 츠빙글리는 교회에서 음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사음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루터와 예배에서 음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던 츠빙글리의 목적은 동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루터는 1524년 자신이 직접 작성한 독일어 회중찬송 코랄(Chorale)이 24곡 포함되어 있는 『비텐베르크 찬송가』(*Wittenberg Hymnal*)를 출판하였다. 그는 이 찬송가의 서문에서 『비텐베르크 찬송가』를 출판한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¹¹⁰⁾ 루터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음악, 종교개혁 이전의 독일 종교음악 그리고 독일 민속음악도 예배음악의 자료로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음악을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때로는 독일어로 단순히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독일인에게 익숙한 민속음악의 멜로디에 새로운 가사를 작시하는 방식으로 예배음악에 반영하기도 하였다.¹¹¹⁾ 그에게는 예배음악의 자료가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음악이든 세속적인 독일 민속음악이든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adiaphora)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배음악이 본질적인 것, 곧 복음을 담지하고 있다면 그 외의 다른 조건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복음을 받아들

10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31.

109) 위의 책, 3, 20, 32.

110) Martin Luther, "Preface to the Wittenberg Hymnal," *Luther's Works*, vol. 53, 316.

111) Friedrich Blume, ed., *Protestant Church Music: a History* (London: Gollancz, 1975), 14. 루터는 직접 60곡이 넘는 찬송가 가사를 작곡하기도 하였다. Ilion T. Jones,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54), 257.

인 회중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는 다양한 출처의 음악을 예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츠빙글리 역시 회중이 각자의 마음에 복음을 깊이 인식하여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루터와는 정반대로 예배에서 음악을 모두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67개 조항』 제 44-46번 조항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선언하였다.¹¹²⁾ 교회가 예배에 음악을 도입하면 결국 회중을 외식적인 기도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예배에서 모든 종류의 음악사용을 반대하였다. 츠빙글리는 예배에 음악을 도입하면 회중이 음악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지만 예배에서 음악을 제거하면 회중이 설교와 기도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523년부터 1598년까지 취리히 교회의 예배에서 음악이 사라졌다. 1527년 시의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로부터 1874년까지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 교회는 오르간이 없었다. 츠빙글리의 이러한 개혁은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가 지적하듯 “기도의 활성화”를 위한 음악의 희생이었다.¹¹³⁾ 그러므로 예배 음악에 대한 루터와 츠빙글리의 입장 차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회중의 능동적인 예배 참여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루터는 음악의 위험성보다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였지만 츠빙글리는 음악의 효율성보다 위험성을 보다 깊이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112) Ulrich Zwingli, "The Sixty-seven Articles," *Ulrich Zwingli Selected Works*, ed., Samuel Macauley Jacks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115.

113)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김석한 역, 『개신교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98. 츠빙글리가 교회 음악을 금지시킨 것에 대해 발터 브란켄부르크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시적인 시도였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개혁교회 예배가 당시는 시작단계에 있었다는 것과 『주님의 만찬의 작용 또는 용도』 (*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의 서문에서 츠빙글리가 “모든 사람이 주님께 경배하기를 바라는 우리는 예배에 적절하고 도움이 된다면 찬양이나 그 외의 다른 어떤 의식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썼다는 점을 지적한다. Walter Blankenburg, "Church Music in Reformed Europe," *Protestant Church Music: a History*, 510.

루터와 츠빙글리와 같이 칼뱅도 회중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음악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함께 살피고 있었다. 그렇다면 칼뱅은 회중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예배에 음악을 도입하되 음악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며 위험성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회중찬송으로서의 시편찬송이다. 그는 1542년 출판한 『제네바 시편찬송』(*Genevan Psalter*)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시편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은 참으로 진실이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노래로 불러드릴 가치가 없다.¹¹⁴⁾

이와 같이 칼뱅은 하나님께 사랑과 경외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찬양은 시편 가사를 단순한 멜로디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형태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회중의 능동적인 예배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츠빙글리와 같이 음악을 회생하지도, 루터와 같이 다양한 가사와 멜로디의 음악을 약간의 변형을 거쳐 예배에 도입하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를 둔 가사와 가사를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단순한 멜로디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¹¹⁵⁾

칼뱅이 처음으로 발행한 시편찬송가는 1539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된 『찬양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시편과 찬송』(*Aulcuns pseaulmes et cantiques mysen chant*)이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찬송가에는 시편을 가사로 한 회중찬송이 대부분이요, 그 외의 찬송 역시 사도신경과 성경을

114) Hughes Oliphant Old,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52에서 재인용.

115) 존 바클리는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예배가 현대인들에게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하여 그러한 견해는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란 예배의 자국어 진행과 회중찬송의 도입이다. John M. Barkley, *Worship of the Reformed Church* (Virginia: John Knox Press, 1967), 21.

가사로 한 찬송들이다. 칼뱅의 시편찬송가는 계속해서 증보되었는데, 그때에도 언제나 찬송의 가사는 사도신경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시편을 비롯한 성경에서 찾았다.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조금의 변형도 없이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만,¹¹⁶⁾ 예배의 모든 순서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하였던 칼뱅은 회중찬송의 가사가 언제나 성경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점에 있어서 루터와 칼뱅의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음악이나 심지어 세속음악까지도 예배음악으로 차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칼뱅은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은 음악은 예배음악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¹¹⁷⁾

또한 칼뱅은 찬송의 멜로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꾸밈음, 기교적인 음, 무용곡을 위한 리듬을 가락에서 삭제하였다. 즉 이음줄, 장식음, 부점이 쳐진 악보를 빼 버림으로써 가락을 소박하게 만들었다.¹¹⁸⁾ 음악적 기교가 인간의 마음을 가사에서 멜로디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그는 음악가들이 예배음악을 우아하고 화려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였다. 칼뱅의 기본적인 원칙은 각각의 음절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순한 멜로디로 반주부가 따로 없이 모든 회중이 하나의 음으로 노래하는 제창(齊唱)이었다.¹¹⁹⁾ 다른 개혁자들에 비하여 음악적 소양이 부족하였던 칼뱅은 『제네바시편 찬송』의 계속되는 증보판을 출판하기 위해서 클레망 마로(Clément Marot)와 루이 부르즈와(Louis Bourgeois)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과 칼뱅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작곡자들이 다양한 화음을 시도하였던 반면, 칼뱅은 단순한 멜로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¹²⁰⁾ 이처럼

116) 칼뱅은 시편을 일정한 멜로디의 회중찬송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시편을 성경본문보다 길게 늘였다. Ford Lewis Battles, ed.,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9), 186.

117) Walter Blankenburg, "Church Music in Reformed Europe," *Protestant Church Music: a History*, 517.

118) Hans Ulrich Jäger-Werth, *Wiederbelebung Reformierter Spiritualität*, 정미현 역, 『깨어나는 종교개혁의 영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90.

119) James Hastings Nichols, *Corporate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35.

120) T. H. L. Parker,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182-83.

칼뱅은 초지일관 단순한 멜로디를 추구하였고, 츠빙글리와 같이 악기의 사용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칼뱅은 예배의 회중이 음악적 기교에 매료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칼뱅은 기도를 노래로 부르는 형태를 찬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D. 성령론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은 예배의 유일한 표준이요, 예배의 각 순서는 성경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는 말씀 선포, 성만찬 그리고 기도를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으며,¹²¹⁾ 이 외에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예배 순서를 거부함으로써 사도시대의 단순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배와 관련하여 그의 말씀론, 성례론, 기도론을 살펴보는 가운데 칼뱅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다시 말해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예배의 각 순서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믿음이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그의 믿음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창세기에 “아벨의 제물”만 언급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주목하면서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그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¹²²⁾ 칼뱅은 아벨의 제사를 “아벨이 드린 예배”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

121) 칼뱅이 십계명의 제 4계명을 설명할 때는 말씀 선포, 성만찬 그리고 기도를 예배의 요소로 꼽는다. John Calvin, 『기독교강요』, 2, 8, 34.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성만찬의 잦은 시행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말씀 선포, 성만찬, 기도와 함께 “구제”도 예배의 요소로 포함시킨다. 위의 책, 4, 17, 44.

12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히 11:4.

다. “믿음 외에 다른 수단으로 한 일들이 제 아무리 그 자체로는 성대하고 호화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굉장히 의롭게 보일지라도 전혀 무가치한 것이며 오직 죄들의 무더기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¹²³⁾

칼뱅은 믿음을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정의한다.¹²⁴⁾ 그리고 그에 의하면 믿음의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곧 믿음의 시작으로 “인식”이요, 또한 믿음의 완성으로 확고부동한 “확신”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照明)함과 동시에 마음에 확신을 준다.”¹²⁵⁾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는 전 과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지각은 부족하다.”¹²⁶⁾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照明)을 받아 이를테면 새로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 이전에 눈을 멀게 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된다.”¹²⁷⁾ “하나님의 영의 조명(照明)이 지성에 진정한 이해력을 준다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은 더욱 분명하다.”¹²⁸⁾ 그러므로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드디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¹²⁹⁾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인간이 합법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배의 순서에는 성경 봉독과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의 원래 저자도,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도 모두 성령이다. 칼뱅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옮겨 적었다고 설명한다.¹³⁰⁾ 또한 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라는 구절의 “풀 것”이 ‘접근’(ἐπιηλύσεως)이 아니라

123) 위의 책, 창 4:4.

12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 1.

125)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앱 1:13.

126) 위의 책, 마 16:17.

12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 34.

128) 위의 책, 3, 2, 36.

129) 위의 책, 3, 2, 33.

130)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딘후 3:1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8, 9.

‘해석’(ἐπιλύσεως)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만이 성경의 참 해석자라는 점을 강조한다.¹³¹⁾ 그러므로 성경이 봉독될 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원리는 설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은혜로 그의 말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¹³²⁾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셨기에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¹³³⁾ 설교자에게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로써 그들은 설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인간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 내부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야 한다.”¹³⁴⁾ 이처럼 칼뱅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귀에 들려와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¹³⁵⁾ 인간의 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을 준다고 주장한다.¹³⁶⁾

성경봉독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인간은 성만찬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그 말씀의 외적인 표징을 얻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확인한다. 그런데 말씀 선포와 말씀의 표징과 인장으로서의 성만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도 성령이다.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령은 귀를 울리고 눈앞에 나타날 뿐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¹³⁷⁾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의 역할은 말씀의 확증과 믿음의 보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만찬을 통하여 인간은 그리스도와 신비

131)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뵘후 1:20-21.

132) 이러한 이유로 칼뱅은 그의 예배 예식서에서 성경봉독과 설교에 앞서 조명을 위한 기도(Collect for Illumination) 순서를 두었다. 본 논문 III, B. “말씀의 예전”을 참고하라.

133) 위의 책, 고전 3:7.

134)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79에서 재인용.

135)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시 119:134.

136) 위의 책, 고후 3:6.

13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4, 8.

한 연합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간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주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의 줄은 그리스도의 영이 시며, 이 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하나가 된다.”¹³⁸⁾ 또한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과 피의 본질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외형적인 상징과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 하였다.¹³⁹⁾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과 인간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인간에게 주신다.¹⁴⁰⁾

말씀과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결과는 기도로 나타나는데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표준을 따르는 진심어린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과정 역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 주시며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¹⁴¹⁾ 칼뱅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는 구절을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심령을 감화하여 주시어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칼뱅은 성령께서 인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르쳐주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순전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목적에서였다”라고 주장한다.¹⁴²⁾ 그리고 기도를 말로 하든지 노래로 부르든지, 기도가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138) 위의 책, 4, 17, 12.

139) 위의 책, 4, 17, 24.

140) 위의 책, 3, 2, 36.

141) 위의 책, 3, 20, 5.

14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롬 8:27.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칼뱅은 예배의 요소에 설교, 성만찬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친교” 혹은 “구제”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쓰니라”(행 2:42)는 구절을 근거로 “교회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며 구제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⁴³⁾ 칼뱅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교제”에 대해서 『기독교강요』에서는 “구제”로¹⁴⁴⁾, 『성경주석』에서는 “교제”, 곧 “형제적 사귄의 유대”로¹⁴⁵⁾ 해석한다. 그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언급하면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때로는 “교제”를, 때로는 “구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구제”와 “교제”가 모두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칼뱅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고전 11:20)의 구절을 주석하면서 고린도교회의 예배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의 성만찬 행위를 정죄하였다고 설명한다.¹⁴⁶⁾ 이는 그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구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칼뱅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롬 16:16)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는 성만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의 우정에 대한 확증의 표로서 서로 간에 키스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배와 교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적한다.¹⁴⁷⁾ 그러므

14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44.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 선포, 성만찬, 공중기도는 분명한 주일 예배의 요소이다. 그러나 친교 및 구제가 예배의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3가지만큼 확실하지 않다. 칼뱅은 십계명의 제 4계명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중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 질서”라고 서술하면서 “친교” 및 “구제”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2, 8, 34. 또한 1542년 출판한 『제네바 시편찬송』에서도 칼뱅은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3가지인데, 곧 말씀설교, 공적기도 그리고 성례”라고 하였다.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5), 184에서 재인용. 친교 및 구제가 말씀의 선포, 성만찬, 공중기도와 같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의 순서는 아닐지라도 칼뱅은 친교 및 구제를 주일예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Jeffrey T. VanderWilt, "John Calvin's Theology of Liturgical Song," *Christian Scholar's Review* 25-1 (September 1995), 73; Elsie Anne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류태선, 전병준 역,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67-68.

14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44.

145)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행 2:42.

146) 위의 책, 고전 11:20.

로 칼뱅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4장 42절의 “교제”가 “구제”인지, “형제적 사권의 유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 성만찬, 기도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교제와 구제의 기독교적 삶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형제적 일치”를 유지하게 된다.¹⁴⁸⁾ “하나님께서 성령을 격리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에게 분배하시며, 그 결과 교회의 지체들이 그들의 은사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연합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¹⁴⁹⁾ 이때 성도간의 일치를 위한 전제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하고 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¹⁵⁰⁾ 한편 칼뱅에게 있어서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인 자기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기부정은 온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¹⁵¹⁾ 그러나 모든 인간성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하므로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인간이 사랑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덕, 모든 정숙하고 절제 있는 감정은 성령,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은 성품으로부터 발한다. ……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떠한 선도 있을 수 없다.”¹⁵²⁾

결론적으로 예배의 전 과정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예배의 시작인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다. 믿음을 소유한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 선포, 성만찬 그리

147) 위의 책, 롬 16:16.

14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 3.

149)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고후 13:13.

150) 위의 책, 엡 4:1-3.

15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7, 4-5.

15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갈 5:22.

고 기도의 순서를 진행할 때도 성령께서 교회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을 통하여 예배전체를 주관한다. 그리고 예배의 지향점은 믿음으로 인한 친교와 구제의 삶인데 이 모든 과정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예배 전체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 성령의 역사로 끝나며, 그 시작과 지향점은 동일하게 인간의 믿음이다.

Ⅲ. 칼뱅의 예식서 분석

A. 칼뱅 예식서의 역사적 위치

1520년대 종교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을 때, 한편에서는 루터의 영향력이 다른 한편에서는 츠빙글리의 영향력이 종교개혁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각각 독일 종교개혁 전통과 스위스 종교개혁 전통의 선구자였던 이 두 사람은 1529년 마르부르크회담에서 결별하였고, 이로써 종교개혁 진영은 크게 루터주의적 개혁사상과 츠빙글리적 개혁사상으로 양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1530년대에 루터적 개신교와 츠빙글리적 개신교 사이의 조정 역할을 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남부 독일의 일부, 특히 알사세(Alsace)에서 일어났으며 슈트라스부르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⁵³⁾ 1530년대 이러한 전통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마틴 부처이고, 슈트라스부르크에 의해 주도된 이 흐름을 1540년대부터 제네바에서 꽃피웠던 사람이 칼뱅이다. 이 장에서는 칼뱅의 예배 예식서를 분석하기에 앞서 종교개혁의 예배전통을 루터, 츠빙글리, 슈트라스부르크 그리고 제네바의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말씀과 성만찬 예전을 확립하고 교회의 회중찬송을 회복시키려 했던 칼뱅의 예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루터의 예배전통

1520년 루터가 발표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는 개신교 예배의 기초를 놓은 작품이다. 여기에서 루터는 기독교의 거룩한 성례가 로마가톨릭교회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성만찬과 관련하여 그는 3가지 포로 상태를 지적했다. 첫째 포로상태는 회중에 게 잔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 포로상태는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153) Elsie Anne McKee,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ed., Lukas Visch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14-15.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이며, 셋째 포로상태는 미사가 희생제사라는 개념이다.¹⁵⁴⁾ 이 글에서 루터는 특별히 로마가톨릭교회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로서의 미사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¹⁵⁵⁾ 그러나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미사예식서를 출판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였고, 루터의 제안대로 처음 미사를 실행했던 사람은 루터 자신이 아닌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였다.

1521년 루터는 『미사의 오용』(*The Misuse of the Mass*)이라는 글에서 비공식적인 개인미사를 거부하였다.¹⁵⁶⁾ 그러나 그가 비텐베르크를 잠시 떠나면서 안드레아스 칼슈타트가 개혁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때 그는 미사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여 미사 전문(典文), 성체를 높이 드는 의식 그리고 성직자의 제의(祭衣)를 폐지하였고, 성만찬의 떡을 회중의 손에 건네주었다.¹⁵⁷⁾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오자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옛 방식으로 돌아갔지만, 루터의 개혁정신에 따른 예식서의 출현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예식서는 갈멜 수도원 원장이었던 카스퍼 칸츠(Kasper Kantz)가 1522년 내놓은 『개신교 미사』(*Evangelical Mass*)였다. 그리고 1524년에는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의 『독일미사』(*German Mass*)가 출판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식서들이 등장하였지만 그 가운데 루터가 동의할만한 예배 예식서는 없었다.¹⁵⁸⁾

1523년 1월 루터는 예배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글을 발표한다. 곧, 『공적 예배의 순서에 관하여』(*Concerning the Order of Public Worship*)이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루터가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강력하게 공격하였다면 이 글에서 그는 미사에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자제를 요구

154) 루터는 이 글에서 미사를 자국어로 드려야 하며, 모든 미사에 성만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artin Luther, "The Babylonia Captivity of the Church," *Luther's Works*, vol. 36, 27-35.

155) 알모스 바즈타는 루터에게 있어서 미사라는 용어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Vilmos Vajta, *Luther on Worship*, tr., U. S. Leupold (Philadelphia: Muhlenberg, 1958), 54.

156) Martin Luther, "The Misuse of the Mass," *Luther's Works*, vol. 36, 133-230.

157) James F. White, 『개신교 예배』, 57.

158)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97.

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예전과 설교 두 가지를 “고상한 기독교 전통”(a high Christian origin)이라고 표현하면서 독재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 이 두 가지가 왜곡되었지만, 이 두 가지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지 폐기처분 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이다.¹⁵⁹⁾ 예전과 말씀 선포 중에서 루터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포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은 수행되어야 한다. ……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대신할 수 없다.”¹⁶⁰⁾ 이처럼 루터는 모든 예배에 설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는 하나의 예전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선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한, 루터는 비본질적인 것(adiaphora)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전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였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그는 1523년 12월 자신의 『미사예식서』 (*Formula missae*)를 출판하였다.

루터는 『미사예식서』의 서문에서 그때까지 새로운 예식서를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가 한편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 없이 단지 옛것을 벗어버리려는 자들의 위험성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제 예배 의식을 정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¹⁶¹⁾ 그러나 실제로 그가 제시한 예식서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의식을 축소한 정도였다. 그는 여전히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의식과 촛불, 향, 제의(祭衣) 등도 그대로 사용하였다.¹⁶²⁾ 그 결과 루터파의 예배에서는 성찬식에 떡과 잔을 높이 드는 의식, 성직자의 제의(祭衣) 그리고 성상 등이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¹⁶³⁾

바드 톰슨(Bard Thompson)은 루터의 『미사예식서』에는 보수적인 경향과 개신교적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루터는 라틴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미사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복음의 관점에 위배되는 요소

159) Martin Luther, "Concerning the Order of Public Worship," *Luther's Works*, vol. 53, 11.

160) 위의 책, 14.

161) Martin Luther, "An Order of Mass and Communion for the Church at Wittenberg," *Luther's Works*, vol. 53, 19-20.

162)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커뮤니케이션연구원, 1994), 108.

163) James F. White, 『개신교 예배』, 63.

는 미사에서 제거하려 했다는 설명이다.¹⁶⁴⁾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루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예배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였던 그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 예식을 크게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루터의 『미사예식서』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다 진보적인 예배개혁을 펼치려는 것을 제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루터의 개혁으로 형성되었던 예배전통이 개신교 진영 안에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비해 츠빙글리의 예배전통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하였기에 개신교 진영 안에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 츠빙글리의 예배전통

예배에 대한 츠빙글리의 첫 작품은 1523년 출판된 『미사전문비판』 (*An Attack upon the Canon of the Mass*)이었다. 그는 여기서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 전문(典文)을 공격하였다. 그는 봉헌 기도로서 이 전문(典文)은 모순되며 희생 제사적 개념을 갖는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사 예식에 수정을 가하였다. 츠빙글리는 말씀의 예전 순서는 대부분 그대로 보존하였으나 성서일과(lectionary)를 간단히 하였고 성자축일(saints day)에 관련된 기도문이나 성경 본문, 기타 순서들은 배제하였다. 음악적 요소들은 과격할 정도로 축소시켰고 성경 봉독과 설교는 자국어로 진행하도록 하였다.¹⁶⁵⁾ 성만찬 예전과 관련해서는 미사 전문(典文)을 4개의 기도로 대체하였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구속에 대한 감사기도로서 주기도문으로 끝난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께서 모든 예배 참여자에게 임재하여 달라는 기도이다. 세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해의 은총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에 대한 신앙고

164)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00.

165)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114.

백이 있고, 마지막 기도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과 초청의 말씀(마 11:28)으로 결론 짓고 있다.¹⁶⁶⁾

1525년 4월 11일 츠빙글리는 두 번째 성만찬 예식서, 『주님의 만찬의 작용 또는 용도』(*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를 취리히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취리히 당국은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폐지하였고, 취리히에는 츠빙글리가 제안한 새로운 성만찬 예배가 도입되었다. 한편 츠빙글리는 같은 해 『말씀의 예전』(*Liturgy of the Word*)를 출판하였다. 이 예식서는 언어와 구조 면에서 바젤의 유명한 목사요 대학교수였던 존 울리히 수르간트(John Ulrich Surgant)가 1502년 바젤에서 출판한 『감독자의 입문서』(*Manuale Curatorum*)에 근거한 것이다.¹⁶⁷⁾ 이렇게 하여 츠빙글리는 기존의 로마가톨릭교회적 예전을 제거하고,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와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와 성만찬 중심의 예배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1년에 네 차례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거행하였고 그 외에는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를 진행하였다.¹⁶⁸⁾ 이제 1525년 출판한 츠빙글리 예식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휴지 올드(Hughes Oliphant Old)는 츠빙글리의 1525년 성만찬 예식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주님의 만찬의 작용 또는 용도』(*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라는 제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곧,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성만찬 예식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동”(Action)인데, 그 행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식사를 나누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곧 감사이다.”¹⁶⁹⁾ 한편 발터 블란켄부르크(Walter Blankenburg)는 1525년 츠빙글리의 성

166) Gordon S.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Edinburgh: T&T Clark, 1998), 72.

167)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42-43.

168) 1년 52주 중에서 4번이 성만찬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말씀 선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Nicholas Wolterstorff, "The Reformed Liturgy,"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d., Donal K. McKim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2), 294.

169)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44. 츠빙글리는 1525년 성만찬 예식서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 기념 예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만찬 예식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독일어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회중찬송을 대신하기 위해 예배순서에 남성과 여성이 기도문을 교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서를 첨가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모든 음악적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⁷⁰⁾ 이 중에서 취리히 당국은 츠빙글리의 두 가지 제안은 받아들였지만, 남성과 여성의 교독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직 목사만이 성경을 봉독할 수 있었다.¹⁷¹⁾

츠빙글리의 『말씀의 예전』 (*Liturgy of the Word*)은 인도자의 “기원”으로 시작하여 주기도문, 아베 마리아(Ave maria), 죽은 자들에 대한 회상의 순서 이후에 설교로 이어진다.¹⁷²⁾ 여기에 아베 마리아(Ave Maria)와 죽은 자들에 대한 회상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수르간트의 『감독자의 입문서』에서 온 것으로써, 여전히 중세적 예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⁷³⁾ 그러나 츠빙글리의 『말씀의 예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식 순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연속설교방식(Lectio Continua)에 있다. 개혁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 연속설교방식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과 절을 순서대로 읽고 설교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세시대 교회력과 신학적 체계에 맞추어 성경을 재배치하는 성서일과(lectionary)방식을 거부하고 성경의 순서와 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다. 츠빙글리는 성경을 순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속설교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신학적 체계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그의 신념을 보여준다.¹⁷⁴⁾

표현이어야 한다.” Ulrich Zwingli, "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50.

170) Walter Blankenburg, "Church Music in Reformed Europe," *Protestant Church Music: a History*, 508.

171)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42. 그렇다고 츠빙글리의 제안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취리히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시편을 교독하는 방식을 받아들였고, 19세기에 이르러 영어권 개신교에서는 이 방식이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James Hastings Nichols, *Corporate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34.

172) 여기에 ‘죽은 자들에 대한 회상’이란 한 주 동안 교회 안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순서를 말한다. Ulrich Zwingli, "Liturgy of the Wo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47-48.

173) 제임스 화이트는 이러한 순서를 “중세기 말의 예배적 경건에 나오는 기묘한 각종 구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James F. White, 『개신교 예배』, 96.

츠빙글리의 예배전통은 말씀의 예전을 독립된 하나의 예전으로 자리매김 시켰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는 개혁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인 연속설교방식 (Lectio Continua)을 정착시킴으로써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종교개혁원칙을 예전에 적용시켰다. 성만찬에 있어서도 참석자들에게 떡과 잔을 모두 나누었다는 점에서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그만큼 예배에서 성만찬의 위치를 약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특히 예배에서 음악을 폐지하였다는 점은 츠빙글리 예배가 건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었다.

3.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전통

1524년 2월 16일 슈트라스부르크의 첫 개혁자였던 디볼트 슈바르츠(Diebold Schwarz)가 성 라우렌스(St. Laurence)교회의 성 요한 채플(St. John's Chapel)에서 자신이 작성한 『독일미사』(*Teutsche Messe*)에 따라서 처음으로 독일어 미사를 진행하였다. 이것이 슈트라스부르크 개혁교회 예배전통의 시작이다. 슈바르츠의 『독일미사』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라틴어 미사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으로, 한두 가지 순서가 삭제되고 변경되었을 뿐이다.¹⁷⁵⁾ 그러나 슈바르츠의 『독일미사』에는 라틴어 미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로 『독일미사』가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설을 받아들였지만 라틴어 미사의 희생제사 교리는 철저히 배격하였다는 것, 둘째로 모든 예배순서가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독일어로 진행되었다는 것,¹⁷⁶⁾ 셋째로 회중에게 빵과 잔이 모두 분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슈바르츠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슈트라스부르크에서는 1525년 이전까지 개혁교회 예배전통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곧 설교와 회중찬송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¹⁷⁷⁾

174)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194-97.

175) William D. Maxwell,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Book* (Westminster: The faith press, 1965), 25.

176) 슈바르츠의 『독일미사』에서는 아직 음악이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 미사에서 노래로 부르던 것은 대체로 말로 대체하거나 생략되었다. Gordon S.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73-74.

슈바르츠의 『독일미사』로 시작된 슈트라스부르크 개혁교회의 예배전통은 1525년 이후부터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신학적 경향에 있어서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서 중도의 길(via media)을 걷는다고 평가받는 마틴 부처의 영향력이 증가되면서 라틴어 미사의 요소들이 더욱 단순화되었기 때문이다.¹⁷⁸⁾ “미사”라는 용어는 “성만찬”으로, “제단”이라는 용어는 “성찬대” 혹은 “탁자”로 바뀌었다. 더 이상 성만찬 집례자를 “사제”가 아니라 “목회자”로 불렀다. 제의(祭衣)가 사라지고, 그 대신 목회자는 검정색 가운을 입었다. 무엇보다 성만찬이 강조되어 1539년에는 대성당에서 매주일 성만찬을 시행하였고, 다른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시행하였다. 설교의 경우 성서일과(lectionary)방식이 폐지되고 연속설교방식(Lectio Continua)이 도입되어 특별한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고 설교하였다.¹⁷⁹⁾ 회중찬송도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운율이 담긴 시편과 찬송이 소개되었고, 이러한 음악이 퀴리에(Kyrie)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Gloria in excelsis)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였다.¹⁸⁰⁾ 실제로 1525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운율이 담긴 시편과 찬송이 예식서에 포함된 이후 1537년까지 계속해서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 찬송에 대한 선택의 폭도 늘어났다.¹⁸¹⁾ 이로써 슈트라스부르크의 예배는 말씀과 성만찬의 예전이 확립되었고, 회중찬송이 정착되었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153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의 영향력이 교회의 신학과 예배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부처의 사상에 변화가 감지된다. 곧, 초기 작품에서 그는

177)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59-60.

178) William D. Maxwell,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Book*, 27. 예배에 대한 부처의 사상은 1525년 출판된 『원인과 이유』(*Grund und Ursach*)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부처는 로마가톨릭교회 미사의 희생제사 개념과 화려한 의식을 공격하면서 전통적이고(old), 참되며(true), 영원한(eternal) 예배를 제안하였다.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62.

179) 1525년 출판된 『슈트라스부르크 독일교회예배』(*Strasbourg German Church Service*)는 “목회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지정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 대신,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일 그 복음서를 설교하고 있다”고 전해준다.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199에서 재인용.

180)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60.

181) William D. Maxwell,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Book*, 62.

일정부분 로마가톨릭교회에 대한 반작용과 만인제사장설에 입각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신뢰로 교역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1530년대부터 그는 교회의 통일성을 옹호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교회, 교역, 성례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¹⁸²⁾ 부처는 슈바르츠의 『독일미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1539년 예배 예식서 『시편찬송, 완전한 교회 예전을 포함하여』(*Psalter, with Complete Church Practice*)를 완성하였다. 1538년 슈트라스부르크에 들어온 칼뱅은 부처의 이 예식서를 직접 확인하였고, 1542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칼뱅의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의 많은 요소가 부처의 이 예식서에서 유래되었다.¹⁸³⁾ 한편 부처는 예배에서 회중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찬송을 가르쳤으며, 회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송은 선창(先唱)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총결산으로 1541년 『찬송가집』(*Gesangbuch*)을 출판하여 예배에 있어서 회중찬송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⁴⁾ 칼뱅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로 돌아간 뒤,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편찬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슈트라스부르크의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¹⁸⁵⁾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전통의 역사적 공헌은 개혁교회에 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 있다. 1520년대 초반까지 슈트라스부르크 예배를 주도했던 슈바르츠는 여전히 루터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그 이후에 점차 주도권을 확보했던 부처는 1530년대 초반까지 츠빙글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가 초기의 급진적인 사상에서 변화되어 교회의 일치와 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530년대 후반 슈트라스부르크는 개혁교회의 예전을 츠빙글리가 확립하였던 말씀의 예전 위에 더욱 풍요로운 전통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이때 슈트라스부르크를 방문하게 되었던 칼뱅은 제네바에서 슈트라스부르크 예배

182)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63.

183) 슈트라스부르크의 예배 예식서와 칼뱅의 예배 예식서의 관계는 William D. Maxwell,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Book*, 23-32을 참고하라.

184)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64.

185) 회중찬송에 대한 칼뱅의 사상이 부처에게 영향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Charles Garside, *The Origins of Calvin's Theology of Music: 1536-1543*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 Transactions, 1979), 14-19를 참고하라.

전통을 한 층 더 발전시켜 개혁신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4. 제네바 예배전통

제네바 예배전통은 1542년을 전후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예배가 시행되었던 1533년부터 1542년까지 제네바의 예배는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의 예식서 『예식과 양식』(*Manner and Fassion*)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1542년 이후에는 칼뱅의 예식서 『교회의 기도 와 찬송의 형식』(*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츠빙글리의 가르침을 따랐던 기욤 파렐의 예식서 『예식과 양식』의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확한 출판시기와 장소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나, 파렐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1524년 몽베리아(Montbéliard)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예식서를 준비하였다고 한다.¹⁸⁶⁾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설교를 위해 준수해야 할 예식”(The Manner Observed in Preaching When the People Are Assembled to Hear the Word of God)이라는 소제목이 분명히 알려주듯 파렐의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였다. 파렐은 자국어로 시편을 노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예식서는 음악을 제공해주지는 않았다.¹⁸⁷⁾ 파렐이 성례의 예식서를 준비한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1530년 6월이었다. 주르(Jura) 산의 지역에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지역사제였으나 파렐의 설교를 듣고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개혁의 여파로 교회의 성상들이 파괴되고 미사가 폐지된 뒤에, 과연 어떠한 개신교의 예전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확신이 없었다. 1530년 부활절에는 제하 보세(Jehan Bosset)라는 뉴브빌(Neuveville)의 젊은 목사가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와 개신교의 성만찬을 모두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파렐은 그들이 성만찬과 세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례 예식서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¹⁸⁸⁾

1531년 파렐은 츠빙글리에게 제네바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186)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18.

187) John H. Leith, 『개혁신교회와 신학』, 227.

188)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74.

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개신교 예배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533년, 앙토이느 프로망(Antoine Froment)이 듀 모르(du Molard)에서 첫 개신교식 예배를 진행하였을 때였다. 같은 해 부활절에 귀르 뮤트(Guérin Muète)가 개인의 집 앞마당에서 파렐의 예식서에 따라 성만찬을 거행했다. 1534년 사순절 기간에는 베른(Bern) 대사의 압력으로 인하여 개신교도들이 프란시스칸 수도회의 회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해 부활절에 파렐은 그 장소에서 400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열정으로 가득 찬 군중들은 그를 대성당의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하였다.¹⁸⁹⁾ 1535년 8월 27일 제네바의 200인 대의회는 종교개혁 칙령을 선언하였고 1536년에 미사가 폐지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칼뱅이 제네바에 들어온다.

1537년 1월 16일 파렐과 칼뱅은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항』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조항』에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교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주장하였다. 첫째, 성만찬을 자주 거행하고 출교를 통해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둘째, 공적 헌신의 형태로 시편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여서 누구든지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들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행하여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황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분명한 법령이 공포되어야 한다.¹⁹⁰⁾

여기서 파렐과 칼뱅이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과 시편찬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파렐과 칼뱅은 성만찬을 매주일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만찬을 자주 거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기에 생 피에르(St. Pierre), 뤼에(Riue) 그리고 생 저베(St. Gervais)의 순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월 1회씩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성만찬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의 치리가 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파렐과 칼뱅은 시편을 찬송으로

189) 위의 책, 77.

190) John Calvin,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48.

부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먼저 어린아이들이 교회 음악을 연습한 뒤에 모든 회중이 익숙해질 때까지 큰 소리로 불러주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¹⁹¹⁾

파렐과 칼뱅이 1537년 1월 시의회에 제출한 『조항』에 대해서 휴지 올드(Hughes Oliphant Old)는 파렐과 칼뱅이 시편찬송, 교회교육의 강조 그리고 성만찬의 잦은 시행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제네바의 예배가 바젤과 슈트라스부르크의 예배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¹⁹²⁾ 그러나 이 『조항』은 시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네바 소의회는 1월 16일이 『조항』을 검토하였는데, 성만찬을 자주 집행하도록 하는 제안만을 제외하고 모든 조항을 통과시켰고, 성만찬은 3달에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¹⁹³⁾ 같은 날 200인 대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비도덕적인 행습들, 우스꽝스러운 노래들, 도박, 주일을 모독하는 행위, 산파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지하고, 성상을 불태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파렐과 칼뱅이 성만찬과 함께 제안한 교회의 출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이 주제는 목회자들과 시민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파렐과 칼뱅이 추방당하는 이유가 되었다.¹⁹⁴⁾ 이렇게 하여 제네바를 떠난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와 함께 사역한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부처의 주도 아래 슈트라스부르크의 예배가 가장 풍요로운 전통을 발전시켰던 시기였다.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온 칼뱅은 “정부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초대 교회 때와 같은 모습의 교회는 유지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11월 20일 제네바 시의회는 『기독교의 질서를 위한 칙령』(*Ordinances for the Ordering of the Christian Religion*)을 통과시켰다.¹⁹⁵⁾ 이렇게 형성된 토대 위에 칼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네바의 예배 회복을 시도한다. 그것은 이미 1537년 1월에 시의회에 제출했던 『조

191) 위의 책, 50-54.

192)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78-79.

193)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39-40.

19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8.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299.

195)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72.

항』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첫째는 말씀과 성만찬 예전의 확립이요, 둘째는 시편찬송의 정착이다.

칼뱅은 말씀과 성만찬 예전의 확립을 위해, 파렐의 『예식과 양식』을 대체할 새로운 예식서 작성에 들어간다. 그는 주일과 평일의 통상적인 예배와 관련하여 칼뱅 자신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사용하였던 바로 그 예배 예식을 도입하였다. 성만찬에 대한 것은 제네바에서 사용하고 있던 예배 형식 중에서 몇 가지 항목과 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대로 채택하였다.¹⁹⁶⁾ 그리하여 1542년 출판된 칼뱅의 예식서가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이다. 칼뱅은 이 예식서의 서문에서 예배를 통한 교회의 일치와 전 회중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세 가지 주안점을 언급하는데 첫째, 예배는 회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드려야 하며 둘째, “보이는 말씀”(the visible words)인 성례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셋째, 회중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⁹⁷⁾ 3년 뒤인 1545년에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이 개정판은 1542년 제네바판에 비해서 말씀의 예전에서는 사죄의 선포와 십계명을 통한 회개의 기도 등이 첨가되었고, 성만찬 예전에서는 시므온의 기도 등이 첨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⁹⁸⁾

1541년 제네바에 돌아온 칼뱅은 시편찬송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그는 이미 1539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찬양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시편과 찬송』(*Aulcuns pseaulmes et cantiques mysen chant*)을 출판한 적이 있었다. 이 찬송집에는 20곡의 시편과 ‘시므온의 노래,’ 십계명과 사도신경이 포함되어 있다. 13곡의 시편찬송은 클레망 마로(Clément Marot)¹⁹⁹⁾가 각색한

196) François Wendel, *Calvin: Sources et Evolution de sa Pensee Religieuse*, 김재성 역,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93. 칼뱅은 그의 예식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1545)에서 “주일 예배의 기도에 있어서 나는 슈트라스부르크의 기도형태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밝혔다.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89.

197)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79에서 재인용.

198)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7-208. 슈트라스부르크 개정판의 변화에 대해서 윌리엄 맥스웰은 1545년 슈트라스부르크 판이 예배 의식을 간단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제네바 행정관료들의 극단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158.

199) 클레망 마로는 칼뱅이 시편찬송집을 출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

것이고, 나머지 시편 찬송은 칼뱅의 작품이었다.²⁰⁰⁾ 칼뱅은 자신이 직접 출판한 『찬양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시편과 찬송』과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사용되던 기도문(고백의 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성만찬 이후 감사기도)을 기초로 1542년 『제네바시편찬송』(*Genevan Psalter*)을 출판하기에 이른다.²⁰¹⁾

성가대 합창을 위한 찬송집이 대부분이던 당시에 회중의 찬송을 목적으로 출판된 칼뱅의 『제네바시편찬송』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출판되던 해에만 25판이나 출판되었고, 그 이후 4년 동안 무려 62판이 나왔다. 영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폴란드어, 보헤미아어, 래토-로망어(Rhaeto Romanic), 라틴어(Latin),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가르코니어(Gascon), 베알나이어(Béarnais), 말레이어, 타밀어, 세수토어(Sesouto), 라틴어, 히브리어, 슬라브어, 페르시아어(Zend) 등으로 번역되어 온 유럽에서 판매되었다.²⁰²⁾ 그 판매량은 한때 성경을 능가하기도 하였다. 『제네바시편찬송』의 이러한 성공은 개신교 예배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제네바시편찬송』이 온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회중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는 형태 역시 전파되어, 개혁교회예배의 중요한 전통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²⁰³⁾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에 의해 주도되었고, 제네바에서 칼뱅에 의해 꽃을 피운 개혁교회의 슈트라스부르크-제네바 예배전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말씀과 성례전의 예전을 확립하려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츠빙글리가 정립했던 말씀의 예전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츠빙글리가 말씀과 성례전을 분리시킴으로써 성례전이 주일 예배에서 부수

물로서, 프랑스 궁정시인출신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로마가톨릭교회로 전향한 인물이다.
200) 칼뱅이 작시한 최초의 찬송가는 시편 41편이었으며, 클레망 마로가 작시한 13편의 찬송가는 시편 1편, 2편, 3편, 15편, 19편, 32편, 51편, 103편, 114편, 115편, 130편, 137편, 143편이었다.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128.

201)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93. 칼뱅은 서문에서 『제네바시편찬송』의 목적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기도와 노래를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위하여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Hans Ulrich Jäger-Werth, 『깨어나는 종교개혁의 영성』, 90에서 재인용.

202) John H. Leith, 『개혁교회와 신학』, 257.

203) Robert M. Kingdon, "The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20-33 (1999), 277.

적인 역할로 전락하였던 것에 대한 극복이었다. 다시 말해 슈트라스부르크-제네바 예배전통은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의 예전을 분명하게 자리매김 시키면서도 이 둘을 주일 예배 안에 통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시편찬송의 정착이다. 루터가 로마가톨릭교회의 음악을 그대로 유지시켰던 반면, 츠빙글리는 교회에서 음악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러나 슈트라스부르크-제네바 예배전통은 예배에서 시편찬송을 정착시킴으로써 음악을 회중에게 돌려주었다.

B. 말씀의 예전

칼뱅의 예식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은 크게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칼뱅은 또 다시 평일에 행하는 예배와 주일에 시행하는 예배를 구분하면서 말씀의 예전을 시작하고 있다. 곧, 평일에는 목회자가 그때의 상황이나 자신의 설교 주제에 맞추어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에 있도다”(시 124:8)라는 구절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²⁰⁴⁾ 이러한 평일과 주일의 구분은 칼뱅이 제시하는 말씀의 예전이 지니고 있는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세 가지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보여준다.

첫째로, 칼뱅이 제시한 말씀의 예전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교회력에 따르는 성서일과(lectionary)방식을 축소하고 주일을 중심으로 한 연속설교방식(Lectio Continua)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연속설교방식은 이미 츠빙글리 예배전통과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전통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방식으로서,²⁰⁵⁾ 이 방식을 도입하면 교회력에 따르는 교회의 예전은 점차 간소화된다. 츠빙글리는 연속설교방식을 취하면서 교회력 중에서는 성탄절, 할례절, 성모대축일, 부활절, 승천절 그리고 오순절만을 유지하였다. 슈트라스부르크 교회 역시 매 주일 말씀

204)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7.

205) 파렐이 말씀의 예전을 연속설교방식에 따랐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파렐이 제네바에 개혁교회전통의 예전을 도입하면서 연속설교방식까지도 시행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나, 분명한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201-02.

의 예전이 연속설교방식을 취하면서 15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교회력에 따르는 예전이 간소화되고 주일 중심의 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²⁰⁶⁾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칼뱅이 그의 예식서에서 말씀의 예전을 평일에 진행되는 예배와 주일에 시행하는 예배로 구분한 것은 말씀의 예전에 있어서 교회력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자리에 주일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⁰⁷⁾ 칼뱅은 실제로 츠빙글리의 예배전통에 할례절과 성모대축일까지 제거하여 1년에 4주(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그리고 오순절)의 예전만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칼뱅은 1년에 네 번의 주일과 고난 주간 일주일만을 제외하고는 연속설교방식으로 말씀의 예전을 진행하였다.²⁰⁸⁾

둘째로, 칼뱅이 제시한 말씀의 예전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말씀의 선포가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서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칼뱅은 평일에 시행되는 말씀의 예전이 목회자가 회중에게 기도를 권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도는 예배가 시행되는 상황이나 설교의 주제에 따르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말씀의 예전이 성경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을 넘어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하며, 말씀의 예전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말씀의 적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평일에 시행되는 말씀의 예전만이 아니라 칼뱅이 제시하는 모든 말씀의 예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칼뱅 자신의 설교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칼뱅의 설교 중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설교는 약 2000편에 이르는데, 그 모든 설교에는 성경해석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 한 편의 설교도 실제적인 적용이 생략된 경우는 없다.²⁰⁹⁾ 적용은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의 필수적인 요

206)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60.

207) 칼뱅은 교회력에 따른 설교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분절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면 성경본문이 문맥과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ughes Oliphant Old,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74.

208) Elsie Anne McKee,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17-18.

209) James F. White,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36. 리샤르 스토페르는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란 성경 메시지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교회(공동체)에 필요한 적용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9.

소이며, 동시에 말씀의 예전이 지녀야 할 특징이기도 했다.

셋째로, 칼뱅이 제시한 말씀의 예전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말씀의 예전이 인간의 순종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뱅의 제안에 따르면 주일에 시행되는 말씀의 예전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 124:8)는 구절을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예배의 부름으로 사용되는 시편의 이 구절은 회중에게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으로써, 이 구절을 선포하면서 칼뱅은 말씀의 예전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에게 예배자로서 필요한 다음의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한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고, 둘째는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로서 말씀의 예전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믿음이다.²¹⁰⁾ 그러므로 칼뱅은 말씀의 예전이 시편 124편 8절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도록 제안함으로써, 회중으로 하여금 성경봉독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때에만 말씀의 예전이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¹¹⁾

평일과 주일에 대한 구분으로 시작되는 칼뱅의 말씀의 예전을 주일에 시행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¹²⁾

예배의 부름(시 124:8)

죄의 고백(Confession)

성경봉독(회중의 양심을 위로할 수 있는 구절로 선택)²¹³⁾

210) 칼뱅은 시편 124편 8절의 “여호와의 이름”과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구절이 각각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음”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창조에서 나타내신 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나타내고 계심”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시 124:8.

211) 칼뱅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분명히 계시되고, 인간이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미 4:2를 참고하라.

212)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7-202.

213) 사죄의 선포를 위한 성경봉독부터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찬송하는 순서는

사죄의 선포
 십계명의 첫째 돌판 찬송
 목회자의 기도
 십계명의 둘째 돌판 찬송
 목회자의 기도²¹⁴⁾
 조명을 위한 기도(Collect for Illumination)
 성경봉독(Lesson)
 설교(Sermon)
 중보기도

위의 순서에 따라 시편 124편 8절을 이용한 예배의 부름 뒤에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가 이어진다. 칼뱅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경에 근거한 기도는 언제나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⁵⁾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용서를 약속하여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 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뱅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이어진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칼뱅이 말씀의 예전에서 예배의 부름 뒤에 바로 이어져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로 이어지는 예배 순서를 확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예배신학에 의한 것이었다.²¹⁶⁾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칼뱅이 말씀의 예전을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 당시 제네바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한다.²¹⁷⁾ 그러나 칼뱅이 예배를 통

슈트라스부르크 판에만 소개되어 있고, 제네바 판에는 없다.

214) 슈트라스부르크 판에서는 회중이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노래로 부르는 동안 목회자는 설교단으로 이동한 뒤, 찬송이 끝나면 목회자의 기도가 이어진다. 반면 제네바 판에서는 죄의 고백이 끝나면 회중이 시편찬송을 부르고, 그 뒤에 목회자가 기도를 시작한다.

215) 본 논문 II, C, 1. “믿음과 신뢰의 열매 - 기도”를 참고하라.

216)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는 이후 칼뱅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 예배의 중요한 전통으로 형성된다. Nicholas Wolterstorff, "The Reformed Liturgy,"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288.

217)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104.

하여 제네바 시민들의 도덕성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일부 반영되었을 지라도, 칼뱅이 말씀의 예전을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주로 그의 기도론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옳다. 칼뱅은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가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순서의 일부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1561년 말씀의 예전에서 사죄의 선포순서를 삭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용서와 화해의 소망을 주는 약속의 어떤 표징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 그러나 새로 개종해 오는 이들에게 걸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아주 쉽게 많은 것을 양보하였다.”²¹⁸⁾ 칼뱅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말씀의 예전 순서는 예배의 부름 뒤에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로 시작되지만, 새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이를 양보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다.²¹⁹⁾

슈트라스부르크 판에 의하면 목회자에 의한 사죄의 선포가 있는 뒤에, 회중이 십계명을 노래로 부르는 순서가 이어진다. 칼뱅이 사죄의 기도 후에 십계명을 찬송으로 부르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율법의 ‘제 3의 사용’을 주장하기 때문이다.²²⁰⁾ 칼뱅에 의하면 율법의 ‘제 1의 사용’은 인간의 죄악을 정죄하여 인간의 죄인 됨을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율법의 역할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된다.²²¹⁾ 율법의 ‘제 2의 사용’은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율법이 범죄자들을 향하여 벌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억제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²²²⁾ 율법의 ‘제 3의 사용’은 신자들을 위한 용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칼뱅은 율법의 ‘제 3의 사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 성도는 이와 같이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²²³⁾ 부처 역시 『원인과 이유』라는 글

218) John H. Leith, 『개혁교회와 신학』, 220에서 재인용.

219) 칼뱅은 자신의 예배 예식서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예배 참여자들을 위하여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배 순서를 일부 양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배의 형식과 순서에 대한 것이었지 그가 자신의 예배신학까지 양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220)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1.

22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2, 7, 6-9.

222) 위의 책, 2, 7, 10-11.

223) 위의 책, 2, 7, 12.

에서 예배를 위하여 십계명의 활용을 제안하였고, 그의 예식서 『시편찬송, 완전한 교회 예전을 포함하여』에서 실제로 십계명을 통한 고백의 기도를 삽입하였다.²²⁴⁾ 그러나 칼뱅의 예식서와 부처의 예식서 사이에 중요한 차이는 부처가 십계명을 죄의 고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칼뱅은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 모두 끝난 뒤에 십계명을 찬송으로 부르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칼뱅이 설명하는 율법의 3가지 용도에 따라 평가한다면, 부처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도록 하는 율법의 ‘제 1의 사용’으로 예배에 활용하였던 반면, 칼뱅은 이미 용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제 3의 사용’으로 예배에 활용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²²⁵⁾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가 끝난 뒤, 칼뱅이 제시하는 말씀의 예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명을 위한 기도’(Collect for Illumination), 성경봉독 그리고 설교가 이어진다.²²⁶⁾ 칼뱅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순서는 어느 것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칼뱅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말씀이 인간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²²⁷⁾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 성경봉독과 설교가 진행되기에 앞서 ‘조명을 위한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성경봉독과 설교 역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순서로써, 칼뱅은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인 성경봉독과 설교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다.²²⁸⁾ 이와 같이 칼뱅에게 있어서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봉독 그리고 설교라는 세 개의 순서는 하나로 묶여 말씀의 예전의 핵심을 이룬다.

224) Martin Bucer, "Psalter, with Complete Church Practice,"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68-69.

225) 루터 역시 율법의 ‘제 1의 사용’을 강조하였기에 루터교회의 예배에서는 율법의 선포가 죄의 고백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 John H. Leith, 『개혁교회와 신학』, 222.

226) 칼뱅의 예식서에 이 3가지 순서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간은 가장 길었을 것이다. 칼뱅의 설교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92.

227)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II, A. “말씀론”과 D. “성령론”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다.

228)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1.

칼뱅은 그의 예식서에서 죄의 고백과 중보기도를 위한 기도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 판과 슈트라스부르크 판 모두 ‘조명을 위한 기도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²²⁹⁾ 그러나 칼뱅이 분명한 기도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명을 위한 기도’를 그가 소홀히 여긴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오히려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필수적인 요소로 성경봉독과 설교 앞에 위치시키면서도 정확한 기도의 문구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칼뱅의 의도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칼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명을 위한 기도의 문구가 아니라 성경봉독과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봉독과 설교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조명을 위한 기도’가 정해진 기도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예전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칼뱅의 예배신학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²³⁰⁾

칼뱅의 예식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봉독과 설교의 관계도 지적해야 한다. 분명히 칼뱅은 성경봉독이 확정적이고 주권적인 반면 설교는 파생적이고 종속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¹⁾ 그러므로 칼뱅의 예식서에서 성경봉독과 설교가 동일한 선상으로 기록되었고, 이 두 가지가 말씀의 예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설교의 권위는 성경봉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말씀의 예전에서 조명을 위한 기도와 성경봉독이 짧은 시간 진행되었던 것에 반하여, 설교는 가장 오랜 시간이 할애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시간상으로 말씀의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설교가 중심이 되는 말씀의 예전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설교가 성령

229) 부처는 그의 예배 예식서에서 조명을 위한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일에 달려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에서 해방되어 부지런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운 뜻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전심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Martin Bucer, "Psalter, with Complete Church Practice,"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70.

230) 휴지 올드는 ‘조명의 기도’가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칼뱅의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Hughes Oliphant Old,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212.

231) 본 논문 II, A, 2.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 설교”를 참고하라.

의 지도를 받으며 성경에 종속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말씀의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석자들의 마음에 선포된다. 그리고 예배 참석자들이 각자의 마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 칼뱅의 예배신학에 의하면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 말씀의 예전은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것이 설교가 중심이 되는 말씀의 예전에서 ‘조명을 위한 기도’와 성경봉독의 위치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칼뱅의 의도이다.

설교가 끝난 뒤에 칼뱅은 중보기도를 위한 긴 기도문을 제시한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²³²⁾

이와 같이 칼뱅이 말씀의 예전에서 제시한 중보기도는 설교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이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는 명령을 재확인 하면서 중보기도로 이어진다. 칼뱅이 여기서 언급하는 중보기도의 명령이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 2:1)라는 구절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이 인간의 신앙적인 훈련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훈련이 진지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여 준다고 설명하였다.²³³⁾ 칼뱅이 설교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중보기도로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시작된 중보기도는 먼저, 세속국가의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둘째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끊임없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기도

232)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9.

233)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딤후 2:1.

하며 말씀의 예전을 마친다.²³⁴⁾

여기서 칼뱅의 예배신학, 특별히 그의 기도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칼뱅은 모든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이어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또한 “간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이어져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²³⁵⁾ 그러므로 칼뱅의 기도론에 의하면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중보기도로 끝나는 말씀의 예전만으로는 아직 완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그 뒤에 감사의 기도로 마치는 성만찬 예전이 시행될 때,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여 감사의 기도로 끝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

C. 성만찬 예전

칼뱅은 1537년 제네바 시의회에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항』을 제출할 때부터 초지일관 교회가 성만찬 예전을 매주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만찬을 1년에 한번만 시행하는 것을 “사탄의 발명품”²³⁶⁾이라고 악평하였던 그는 성만찬 횟수에 대하여 분명하게 “최소한 1주에 한번씩”²³⁷⁾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제네바에서 단 한 차례도 매주 성만찬을 집행하지는 못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의회에 반대였다.²³⁸⁾ 시의회에 결의에 따라 제네바 교회는 성만찬 예전을 1년에 4번(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추수절) 시행하였고, 칼뱅의 성만찬 예식서(1542년 제네바 판)는 “성만찬 예식이 거행되는 날에는 다음의 내용이 위의 기도에 덧붙여진다”라는 구절로 시작한다.²³⁹⁾

234)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9-202.

235) 본 논문 II, C, 1. “믿음과 신뢰의 열매 - 기도”를 참고하라.

23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46.

237) 위의 책, 4, 17, 43.

238) 칼뱅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는 자신의 이상, 곧 매주일 성만찬 예전을 집행하는 것을 실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Gordon S.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80.

239)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매 주일 성만찬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칼뱅이 성만찬을 1년에 4번 시행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신학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신학적인 이유는 그가 성례를 복음말씀에 대한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⁴⁰⁾ 그러므로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언제나 함께 진행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이지만, 성만찬 예전이 제외된 상태에서 말씀의 예전만 진행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만일 말씀의 예전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만찬 예전만을 강요받았다면 칼뱅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²⁴¹⁾ 또한 현실적인 이유로는 16세기의 평신도들이 매주일 성만찬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현실을 꼽을 수 있다. 16세기 서방교회의 성만찬은 교회의 수찬정지(ex-Communio)와 직접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도덕적 미성숙은 곧 성만찬에서의 배제를 뜻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매주일 성만찬을 시행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²⁴²⁾ 그러나 칼뱅이 1년의 4번 시행되는 성만찬으로 만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561년 그는 “나는 우리의 성만찬 관례에 결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을 조심해 왔다. 이제 내 이후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다 자유롭고 용이하도록 고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²⁴³⁾ 성만찬 예전이 온전히 회복되어 매주일 성만찬을 시행하는 날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칼뱅의 성만찬 예식서가 제시하는 성만찬 예전의 구체적인 순서를 살펴 보기에 앞서 성만찬을 위한 준비로서 칼뱅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칼뱅은 그의 성만찬 예식서 안에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준비사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뱅은 성만찬을 시행하기 한 주전, 다음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회중에게 공포하도록 하였다. 첫째, 각 사람은 자신이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마땅한 경외심으로 성만찬을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아 교회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셋째, 교육받지 못하여 신앙에 대하여 무지한 외부인이 있다면 그들은 개별적으로 교육을

the Western Church, 202.

24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4, 3.

241) John H. Leith, 『개혁교회와 신학』, 226.

242)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105.

243)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161에서 재인용.

받아야 한다.²⁴⁴⁾ 이러한 주의사항은 ‘개인적인 신앙교육의 차원’에서 성만찬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각 사람”이 성만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이지요, 어린이들이나 외부인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앙교육의 차원이다.

또한 칼뱅은 예수께서 믿음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오직 제자들만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만찬 제정의 말씀에 수찬정지의 순서를 포함시켰다. 칼뱅이 제시하는 수찬정지의 대상은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자,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모든 분파주의자, 모든 위증하는 자, 부모님을 비롯하여 윗사람에게 반항하는 자, 난동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자, 난폭하고 무질서한 자, 간음한 자, 외설적이고 호색적인 자, 강도, 강간범, 탐욕적이며 욕심에 사로잡힌 자, 술고래, 폭식가 그리고 부끄러움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다.²⁴⁵⁾ 이에 대해서는 제네바 시의 컨시스토리(Consistory)가 감시·감독하였고, 제네바에서는 루터가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의 순서 뒤에 성만찬을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컨시스토리에 의해 수찬정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개인적인 고백의 순서 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²⁴⁶⁾ 칼뱅이 제시한 수찬정지의 목록과 수찬정지에 대한 컨시스토리의 감시 및 감독은 제네바 교회의 수찬정지가 성만찬 예전을 위한 ‘교회와 사회의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준비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칼뱅은 성만찬을 받기 위하여 ‘개인적인 신앙교육의 차원’과 ‘교회와 사회의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준비를 동시에 강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⁴⁷⁾

이제 이상의 준비와 조건이 갖추어 진 후, 칼뱅의 예식서에 따라 진행되는 성만찬 예전의 순서를 살펴볼 차례이다. 그런데 칼뱅은 성만찬 예식서에서뿐

244) 칼뱅은 성만찬을 시행하는 날에는 목회자가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설교의 결론이나, 혹은 설교 전체의 주제로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제시하였다.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4-05.

245) 위의 책, 206.

246)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34.

247) 엘시 맥키는 칼뱅이 제시하는 성만찬을 위한 준비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Elsie Anne McKee,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22-23.

만 아니라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성만찬의 진행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공중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설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식탁에 놓은 후에 목사가 성만찬의 제정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야 한다. 다음에, 목사는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낭독하는 동시에 주께서 금지하신 사람들을 성만찬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 후에 목사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양식을 주신 자비로우신 주께서 우리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원래 이런 잔치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를 주의 자비로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시편들을 노래하든지 또는 무엇을 읽든지 해야 하며, 목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적당한 순서로 신자들이 이 가장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성만찬이 끝난 후에는 진지한 믿음과 신앙고백을 그리고 사랑과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권고하는 말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 이 일들이 끝나면 교회는 조용하게 산회해야 한다.²⁴⁸⁾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알려주는 성만찬의 진행순서는 그의 예식서 순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²⁴⁹⁾ 그의 예식서를 기준으로 성만찬 예전의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⁰⁾

신앙고백
성만찬을 위한 기도²⁵¹⁾
제정의 말씀 (수찬정지 포함)
분병 및 분잔
감사기도
시므온의 기도²⁵²⁾

24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43.

249)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제정의 말씀과 분병·분잔 사이에 목회자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예식서에는 그러한 기도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250)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2-08.

251) 슈트라스부르크 판에는 신앙고백 뒤에 성만찬을 위한 기도가 있는 반면, 제네바 판에는 말씀의 예전 마지막 순서인 중보기도 뒤에 성만찬을 위한 기도가 이어진다.

칼뱅은 말씀의 예전에서 성만찬 예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신앙고백의 순서를 두었다. 신앙고백은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말씀의 예전에 참여한 회중이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울러 인간이 성만찬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믿음을 재확인하는 순서이다.²⁵³⁾ 다시 말해 칼뱅은 말씀의 예전이 신앙고백으로 마치고, 성만찬 예전이 신앙고백으로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가지 예전을 ‘믿음’으로 이어주고 있다. 신앙고백에 있어서 제네바 판과 슈트라스부르크 판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제네바 판에서는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슈트라스부르크 판에서는 회중이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르고 그 동안 목회자는 떡과 잔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판과 슈트라스부르크 판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고백은 모든 회중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신비한 연합”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²⁵⁴⁾ 그러므로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이어주는 인간의 ‘믿음’은 한편으로 말씀의 예전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참여자들이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슈트라스부르크 판에 의하면 신앙고백이 있는 뒤 ‘성만찬을 위한 기도’가 다음과 같이 뒤따른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유일회적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²⁵⁵⁾

252) 시므온의 기도를 찬송으로 부르는 순서는 슈트라스부르크 판에만 나타난다.

253)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1-92.

254)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4.

255) 슈트라스부르크 판이 제시하는 ‘성만찬을 위한 기도’와 제네바 판이 제시하는 ‘성만찬을 위한 기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제네바 판에는 ‘성만찬을 위한 기도’가 말씀의 예전 마지막 순서인 중보기도에 연이어지는 반면, 슈트라스부르크 판에서는 신앙고백 이후에 진행된다. 또한 제네바 판과 슈트라스부르크 판은 기도문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슈트라스부르크 판의 기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일회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로써 칼뱅은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를 주장하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입장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유일회적으로 제사하셨기에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그의 예배신학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²⁵⁶⁾ 오히려 칼뱅은 인간의 기도가 일종의 희생, 곧 제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²⁵⁷⁾ 칼뱅은 그의 성만찬 예식에서 희생제물로서 떡과 잔이 아니라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제안하고 있다.²⁵⁸⁾ 그러나 칼뱅이 떡과 잔이 희생제물로 바쳐진다는 개념을 거부한다고 해서 츰빙글리가 주장하듯이 성만찬이 단지 기념과 감사의 예식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칼뱅의 ‘성만찬을 위한 기도’(제네바 판)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²⁵⁹⁾ 츰빙글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츰빙글리가 그의 성만찬 예식서에서 제시하는 기도와 칼뱅이 제시하는 기도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츰빙글리의 예식서에 따르면 성만찬은 “불쌍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참된 믿음과 인내로써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한다.²⁶⁰⁾ 이처럼 츰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전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행동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칼뱅의 성만찬 예식서는 슈트라스부르크 판과 제네바 판 모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에서는 마지막에 주기도문이 첨가되어 있지만, 제네바 판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용하는 기도의 첫 시작은 슈트라스부르크 판과 제네바 판이 모두 동일하다. 위의 책, 202-04.

256) 희생제사로서의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에 대한 칼뱅의 비판은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8, 1-20을 참고하라.

25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히 13:16.

258) 칼뱅은 성만찬 제정의 말씀에서도 눈에 보이는 떡과 잔에 회중의 마음이 유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희생제물로서의 떡과 잔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라(Sursum Corda)고 권면한다.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7.

259) 위의 책, 202-03.

260) Ulrich Zwingli, "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51.

의 몸과 피를 받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야 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양식이십니다”라고 기도한다.²⁶¹⁾ 그러므로 칼뱅은 츠빙글리와는 달리 성만찬 예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비한 연합을 기대하며, 그러한 소원을 ‘성만찬을 위한 기도’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²⁶²⁾

칼뱅은 ‘성만찬을 위한 기도’가 끝난 이후(슈트라스부르크 판에서)²⁶³⁾ 떡과 잔을 나누는 순서 이전에 ‘성만찬 제정의 말씀’ 순서를 배치하였다. 목회자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을 봉독한다. 이 구절에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므로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는 구절(고전 11:27-29)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목회자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은 이 구절을 근거로 진행된다.²⁶⁴⁾ 다시 말해 목회자는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찬정지를 명한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회중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권면한다.

성 바울의 권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로 마음 아파하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구원을 찾고 있는지, 모든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와 형제

261)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2-04.

262) 니콜라스 월터스토르프는 츠빙글리의 기도와 칼뱅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츠빙글리의 성만찬 예전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인간의 행동’인 반면 칼뱅의 성만찬 예전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참여’라고 설명한다. Nicholas Wolterstorff, "The Reformed Liturgy,"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291-93.

263) 제네바 판에서는 신앙고백이 끝난 이후이다.

264) “성만찬의 합당한 거행”을 강조하기 위하여 칼뱅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29절을 포함하여 읽도록 하였던 것은 당시로서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개혁신교회의 전통이 되었다. 박경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교회와신학』 제 62호 (2005. 가을), 49-50.

적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결심하며 결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²⁶⁵⁾

칼뱅은 『성만찬에 대한 소논문』 (*Short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 and only Saviour Jesus Christ*)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이 성만찬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에게 믿음과 회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²⁶⁶⁾ 이와 같이 칼뱅에게 있어서 성만찬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인 믿음과 회개는 나누어지는 않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리고 칼뱅의 주장에 따르면 회개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²⁶⁷⁾ 그러므로 칼뱅이 제시하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회중에게 먼저 회개의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도록 요청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회개와 신뢰의 마음은 사랑의 삶을 향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이 회개와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떡과 잔이 분배된다.

떡과 잔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칼뱅은 교회의 자율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회중이 떡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가 자신의 떡만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회중이 받은 잔을 집사(deacon)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옆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포도주는 붉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흰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 등은 교회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²⁶⁸⁾ 그러므로 칼뱅의 슈트라스부르크 판 성만찬 예식서는 제네바 판 예식서에 비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순서와 복음서에 나타난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²⁶⁹⁾ 칼뱅은 그것을 교회의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규율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265)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6.

266)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 and only Saviour Jesus Christ,"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150.

26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고전 11:28.

26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43.

269) 슈트라스부르크 판에 의하면 떡과 잔을 받는 순서는 목회자, 집사(deacon)

오히려 칼뱅이 수호하려했던 것은 떡과 잔을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율권이였다. 베른 시가 그들이 사용하였던 세례기를 제네바의 교회에도 강요하였을 때, 칼뱅이 교회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이에 저항하였고 결국 제네바를 떠나야 했던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칼뱅이 떡과 잔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가 성만찬 예전에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다양한 의식을 첨가함으로써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²⁷⁰⁾ 그러므로 칼뱅이 제시하는 성만찬 예식은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나 루터의 『독일미사』에 비하여 “단순성”을 추구하였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분명하게 제안하였던 것처럼²⁷¹⁾ 그의 예식서에서도 떡과 잔을 나누는 동안 시편을 찬송하든지 성만찬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봉독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성만찬 예전은 루터의 예배전통이나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와 비교하면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²⁷²⁾ 그리고 칼뱅이 추구한 “단순성”은 말씀을 확증하고 인간의 믿음을 인치며 그리스도와와의 신비한 연합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데 성만찬의 본래 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함이었다. 칼뱅이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의적 의식을 제거하면서도 떡과 잔을 나눌 때 시편을 찬송하거나 성경구절을 봉독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칼뱅의 성만찬 예식에 따르면 떡과 잔을 받은 이후 떡과 잔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써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가 이어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리고 회중의 순서이다. 또한 복음서에 나타난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이용하여 목회자는 온 회중에게 “받아먹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집사는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라고 선언한다.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7-08.

270) 칼뱅은 “우리는 현재 집행되는 성례들이 그 시초의 순결성에서 많이 타락한 것을 본다. 어디를 보아도 행렬과 의식과 무언극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공격하였다.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8, 20.

271) 위의 책, 4, 17, 43.

272) 어거스트 레체르프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에 익숙했던 16세기 당시의 회중이 칼뱅의 예식서를 따르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전의 부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uguste Lecerf, "The Liturgy of the Holy Supper at Geneva in 1542,"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209.

죄인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원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²⁷³⁾ 이로써 회개와 고백의 기도로 시작한 예배는 감사의 기도로 끝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²⁷⁴⁾ 그런데 칼뱅이 제시하는 감사의 기도는 이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참석자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이어진다. 칼뱅이 제시하는 기도에는 선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다.²⁷⁵⁾ 칼뱅은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말씀과 성만찬 예전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 회중이 친교와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였는데,²⁷⁶⁾ 이러한 사상이 그가 제시하는 감사 기도에 선행에 대한 결단 및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감사기도까지 모두 마친 후에 목회자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라고 회중을 축복하며 회중을 해산시킨다.²⁷⁷⁾ 칼뱅은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민수기 6장의 이 구절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⁸⁾ 그러므로 목회자가 해산하는 회중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축복하는 이 마지막 순서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중의 마음에 선포된 말씀의 예전과, 말씀을

273)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3.

274) 칼뱅은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된다고 하였다.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히 13:15.

275)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3.

276) 본 논문 II, D. “성령론”을 참고하라.

277) 슈트라스부르크 판에서는 감사기도와 축도 사이에 회중이 시므온의 기도를 찬송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책, 208.

278)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민 6:22.

확증하고 인간의 믿음을 보증하며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영생의 양식을 받은 성만찬 예전이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였던 모든 회중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예배가 마치게 된다.

D. 회중찬송

칼뱅 예식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회중찬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뱅은 회중찬송을 예배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음악을 많은 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던 루터나, 예배에서 음악을 전면 배제했던 츠빙글리와는 다른 독특한 예배전통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칼뱅의 예식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회중찬송으로써의 시편찬송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먼저 칼뱅이 제시하는 회중찬송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에 대한 칼뱅의 생각은 『창세기 주석』에 포괄적이면서도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칼뱅은 가인의 후손 유발이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창 4:20)이 되었다는 구절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음악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에게서 처음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음악의 시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여 음악을 무조건 죄악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음악은 죄악 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칼뱅은 창세기의 이 구절이 인간에게 던지는 참된 교훈은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음악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라고 이해한다. 칼뱅은 동일한 『창세기 주석』에서 교회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칼뱅의 견해는 음악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배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 타락한 인간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을 예배에 도입할 때 음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²⁷⁹⁾

279) 위의 책, 창 4:20-22.

음악의 효용성과 위험성을 함께 인식하였던 칼뱅은 제네바 교회에서 한편으로는 음악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음악을 통하여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다. 음악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그의 노력은 악기, 특별히 오르간에 대한 사용을 규제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시 33:2)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그것이 새 언약에 속한 신약시대의 교회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새 언약의 시대에 만일 악기를 이용하여 찬송을 하면 찬송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노래하는 쾌락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분리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공적인 예배에서 악기의 사용을 반대한다.²⁸⁰⁾ 반면 칼뱅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는데 그 방법은 성경, 특별히 시편을 단순한 멜로디로 회중이 함께 부르도록 한 것이다. 그는 1537년 1월 16일 시 의회에 제출한 『제네바의 교회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항』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공적인 기도의 형태로 시편을 노래로 부르며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²⁸¹⁾ 그리고 1542년에는 실제로 『제네바 시편찬송』(*Genevan Psalter*)을 출판하여 예배에 회중이 시편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칼뱅이 제시한 회중찬송의 특징은 첫째로 모든 가사가 성경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며, 둘째로 악기와 음악적 기교를 배제한 단순한 멜로디라는 점이다.

280) 위의 책, 시 33:2. 이러한 칼뱅의 입장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악기를 방종으로 바꾸어버리기 쉽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엄청난 방종에 취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어리석은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 내고 심히 몰두하면서도 그 가장 즐기는 만족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생각들을 억누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책, 시 150:3-5. 그러나 칼뱅이 악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악기 사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반대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가 악기를 사용하고 외국어로 찬송함으로써 가사의 내용을 흐리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지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281) John Calvin,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48.

이제 칼뱅이 제안하는 시편찬송이 그의 예배 예식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으로 구분되는 칼뱅의 예식서에서 시편찬송으로 대변되는 회중찬송은 회중이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간직하여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먼저 말씀의 예전이다. 칼뱅은 말씀의 예전에서 예배의 부름 뒤에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가 뒤따르는 예배 순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칼뱅의 제네바 판 예식서는 죄의 고백 이후에 사죄의 선포 순서가 생략되고 그 대신 시편찬송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편찬송은 고백의 기도와 연결되어있다. 그런데 고백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불의(不義)를 온 마음으로 깨달아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어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악을 행하려는 모든 욕심을 억누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순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로 끝난다.²⁸²⁾ 이러한 기도에 곧바로 시편찬송이 이어지면서 진실한 회개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새로운 다짐이 입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판 예식서에서는 이를 조금 수정하여 죄의 고백과 목회자의 사죄선포가 있는 후에 회중이 십계명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노래로 부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십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회중이 노래로 부르는 순서 사이에 목회자의 기도가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회중이 노래로 부르는 순서는 목회자의 기도와 연결된다. 목회자의 기도에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지고 찍혀지게 하시어 우리의 온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에게만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다.²⁸³⁾ 그러므로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 이후에 회중이 십계명을 노래로 부르도록 한 칼뱅의 의도는 이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이 회중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말씀의 예전에서 칼뱅은 회중찬송을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 순서와 연결함으로써 회중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봉독 그리고 설교의 순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2)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7-98.

283) 위의 책, 198.

칼뱅은 예배가 말씀의 예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만찬 예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신앙고백이다. 칼뱅은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 사이에 신앙고백의 순서를 두어 회중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성만찬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칼뱅의 슈트라스부르크 판 예식서에서는 신앙고백이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르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²⁸⁴⁾ 그러므로 여기서의 회중찬송은 말씀의 예전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제 곧 행하게 될 성만찬 예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가 회중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성만찬 예전에서 칼뱅은 시편찬송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성만찬 예전의 떡과 잔을 나누는 순서에는 시편찬송이나 성만찬과 관련된 성경구절의 봉독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²⁸⁵⁾ 칼뱅이 그의 예배 예식서에서 제시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칼뱅의 제네바 판 예식서는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동안 시편을 찬송하거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였고, 슈트라스부르크 판 예식서는 특별히 시편 138편을 찬송하도록 하였다.²⁸⁶⁾ 그렇다면 왜 칼뱅은 특별히 시편 138편을 성만찬 예전에서 회중이 노래로 부르도록 하였을까? 칼뱅은 시편 138편을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시 138:1)라는 구절에서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천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해한다.²⁸⁷⁾ 그리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시 138:2)라는 구절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외부적 상징”이라고 설명한다.²⁸⁸⁾ 한편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시 138:6)라는 구

284) 제네바 판에서는 목회자가 회중의 대표로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책, 204.

28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7, 43.

286)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8.

28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시 138:1.

288) 위의 책, 시 138:2.

절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²⁸⁹⁾ 이상의 몇 가지 이유로 칼뱅은 성만찬에서 시편 138편을 회중이 찬송하도록 하였다. 높이 계시지만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에게 말씀의 상징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 회중이 진심으로 찬송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성만찬 예전에서 떡과 잔이 모두 분배되고, 감사의 기도까지 끝나면 목회자는 회중에게 아론의 축복을 선언하며 회중을 해산시키는데 슈트라스부르크 판에서는 목회자의 축도가 있기 바로 직전, 회중이 시므온의 노래를 찬송하도록 되어 있다.²⁹⁰⁾ 시므온의 노래는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눅 2:28-29)라고 시작한다. 칼뱅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구절을 주목하면서 “주의 구원”이란 “구원의 내용”을 의미하며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더욱 평안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한다.²⁹¹⁾ 그러므로 칼뱅은 예배의 마지막에 회중이 시므온의 노래를 찬송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곧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회중이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의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회중찬송은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예배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칼뱅은 회중찬송으로서의 시편찬송이 지니고 있는 힘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곧 온 회중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말씀의 예전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며 성만찬 예전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289) 위의 책, 시 138:6.

290)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208.

291)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눅 2:29-30.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중찬송은 꼭 필요한 예배의 요소였다.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서 회중찬송은 독립된 하나의 예전이 아니라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 안에 회중의 진실한 마음까지 하나로 묶어, 예배 전체가 찬송과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IV. 결론

A. 요약

지금까지 칼뱅의 예배신학을 재구성하고, 그의 예배신학적 관점에서 그의 예배 예식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그의 예배신학을 재구성하면서 칼뱅에게는 인간의 예배가 참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한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원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예배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⁹²⁾ 성경에 근거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곧 성경을 예배의 유일한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예배의 유일한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칼뱅은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예배요소를 철저히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시대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 설교, 성만찬 그리고 회중찬송의 회복을 꿈꾸었다. 그리고 그의 예배 예식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그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제네바 교회의 예배에서 실제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칼뱅의 예배 회복, 그 첫째는 말씀의 선포, 곧 “설교”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전제되어야 인간의 예배가 진실한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칼뱅은²⁹³⁾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292) 휴지 올드는 개혁교회의 예배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첫째는 성경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예배가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Hughes Oliphant Old,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3-6. 칼뱅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하에서 신구약성경은 통일성과 연속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올드가 주장하는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에 포함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93) 이점에서 칼뱅과 루터 사이에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예배에 있어서 루터는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점을 두었던 반면,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의 순종에 강조점을 두었다. J. S. Whale, "Calvin," *Christian*

요소로 설교를 꼽았다. 그가 설교의 회복을 꿈꾸었다고 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하다. 첫째로, 설교란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봉독 그리고 설교가 함께 묶여진 하나의 예전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조명을 위한 기도’와 성경봉독의 순서가 있는 뒤에 설교의 순서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칼뱅은 설교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칼뱅의 설교는 연속설교방식(Lectio Continua)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스위스 종교개혁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한 연속설교방식은 설교자의 주관이나 교회의 현실, 혹은 교회력에 따라 필요한 성경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와 흐름을 인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칼뱅은 설교가 성경에 종속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뱅의 예배 회복, 그 두 번째는 “성만찬”의 회복이다. 칼뱅이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예배에서 성만찬의 회복을 꿈꾸었다고 했을 때, 그가 한편으로는 성만찬의 잦은 시행과, 또 한편으로는 성만찬을 시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칼뱅은 성만찬의 횟수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가 꿈꾸어왔던 성만찬의 회복은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가 성만찬을 자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의 예배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주입된 자질(資質, quality)이 아니다. 다만 성만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누릴 수가 있다.²⁹⁴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성만찬의 잦은 시행이 필수적이다. 또한 칼뱅은 성만찬의 회복을 위하여 성만찬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그는 ‘개인적인 신앙교육의 차원’

Worship: Studies in its History and Meaning, ed., Nathaniel Mickle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156.

294)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인간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주신다는 약속(말씀)과 성만찬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성만찬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주장한다. Michael J. Taylor, *The Protestant Liturgical Renewal: a Catholic View Point* (Maryland: The Newman Press, 1963), 83-88. 이 점에서 합당한 예배를 위한 칼뱅의 원칙, 곧 성경에 근거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성만찬에도 적용된다.

과 ‘교회와 사회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를 강조하였는데, 이로써 성만찬이 말씀에 대한 표징과 인장, 나아가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뱅의 예배 회복, 그 세 번째는 “회중찬송”의 회복이다. 예배에 회중찬송을 도입하는 이유는 회중이 마음의 확신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회중찬송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령에 지도를 받아야 한다. 회중찬송이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회중찬송의 가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칼뱅이 가장 선호했던 찬송의 가사는 다윗의 시편이었다. 또한 회중찬송이 성령에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음악적 기교와 악기의 효과에 빼앗겨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찬양의 멜로디는 성경에 근거한 가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곡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회중찬송은 말씀의 예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으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고 성만찬 예전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현상이 되도록 돕는다. 이처럼 칼뱅은 성경이 분명하게 지시하는 예배의 순서를 설교, 성만찬 그리고 기도라고 생각하였고, 이 세 가지 순서가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칼뱅이 꿈꾸었던 예배 개혁, 곧 예배의 회복이었다.²⁹⁵⁾

B. 제언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장로교회 안에는 예배의 개혁 혹은 예배의 회복에 대한 논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논의들 속에서 어떠한 이들은 전통적인 장로교예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예배가 전통에서 과도

295) 칼뱅은 그의 예배 예식서에서 구체적인 구제의 순서(봉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말씀의 선포, 성만찬, 기도와 함께 구제를 지적하였던 그는 슈트라스부르크 교회가 행하였던 구제 사업을 본받아 제네바 교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Hughes Oliphant Old,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153-155를 참고하라.

하게 벗어나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계하는 듯하다. 이러한 때,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장로교회(개혁교회) 예배전통의 뿌리가 되는 칼뱅에게 있어서 예배의 개혁은 곧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배의 개혁을 원하는 이들은 예배 개혁의 목표가 어디까지나 예배의 회복, 곧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순수한 예배로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새로운 예배의 개혁이 한국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들은 장로교회(개혁교회)의 예배전통이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예배를 개혁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만 21세기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에 대한 다양한 입장 사이에서 논의의 접촉점을 확보할 수 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전통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이요, 전통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전통이며, 모든 전통을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으로 점검하는 전통이다. 장로교회(개혁교회)의 예배전통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한국의 장로교회가 16세기 제네바에서 사용하였던 칼뱅의 예배 예식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의 장로교회는 21세기 한국의 토향에 가장 적절한 예배의 실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칼뱅의 예배 회복은 중요한 원칙과 단서를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요,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성만찬 예전, 그리고 회중찬송(시편찬송)의 회복이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설교, 성만찬 그리고 기도의 순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이다.²⁹⁶⁾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신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성만찬에 참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만찬을 통하여

296) 자노스 파츠토르는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Janos Pasztor, "Calvin and the Renewal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The Reformed World* 40-2 (June 1988), 911.

인간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이끌어 올리신다.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표현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인간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이처럼 예배란 인간의 활동이기에 앞서 인간을 찾아와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며, 인간의 예배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대한 인간의 참여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만찬, 그리고 회중찬송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는 먼저 성경이 지시하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한 분 만을 예배한다면 성령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 장로교회가 참된 의미로서의 회복을 꿈꾼다면, 그 역시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시작해야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Calvin, John.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London: SCM Press, 1953.
- _____. "Short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 and only Saviour Jesus Christ."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London: SCM Press, 1953.
- _____.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ed. Bard Thompson.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1.
- _____.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London: SCM Press, 1953.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 _____. *John Calvin's Sermons on 1 Timothy*. 김동현 역.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해』 (상). 서울: 엘멘출판사, 2002.
- _____. *John Calvin's Sermons on Micah*. 강서문 역. 『칼빈의미가강해』. 서울: 도서출판 잠언, 1996.
- _____. *The Calvin Commentary*.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존 칼빈 성경주석』. 서울: 성서원, 1999.

2차 자료

2. 서양서적

Barkley, John M. *Worship of the Reformed Church*. Virginia: John Knox

- Press, 1967.
- Blume, Friedrich, ed. *Protestant Church Music: a History*. London: Gollancz, 1975.
- Garside, Charles. *The Origins of Calvin's Theology of Music: 1536-1543*.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 Transactions, 1979.
- Greef, W. de.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 Jones, Ilion T.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54.
- Maxwell, William D.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Book*. Westminster: The faith press, 1965.
- Moeller, Pamela Ann. *Calvin's Doxology: Worship in the 1559 Institutes with a View to Contemporary Worship Renewal*. Pennsylvania: Pickwick Publication, 1997.
- Nichols, James Hastings. *Corporate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 Old, Hughes Oliphant.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5.
- _____.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 Tamburello, Dennis E.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 Taylor, Michael J. *The Protestant Liturgical Renewal: a Catholic View Point*. Maryland: The Newman Press, 1963.
- Thompson, Bard,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71.
- Vajta, Vilmos. *Luther on Worship*. Tr. U. S. Leupold. Philadelphia: Muhlenberg, 1958.
- Wakefield, Gordon S.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Edinburgh: T&T

Blark, 1998.

White, James F.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3. 번역서적

Battles, Ford Lewis, ed.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9.

Jäger-Werth, Hans Ulrich. *Wiederbelebung Reformierter Spiritualität*. 정미현 역. 『깨어나는 종교개혁의 영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Leith, John 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황승룡, 이용원 역.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9.

Maxwell, William D.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커뮤니케이션연구원, 1994.

McKee, Elsie Ann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류태선, 전병준 역.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Parker, T. H. L. *Calvin's Preaching*. 김남준 역. 『칼빈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3.

_____.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8.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Stauffer, Richard.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성서연구사, 1994.

Stookey, Laurence Hull. *Eucharist*. 김순환 역.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정장복

역.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Wendel, François. *Calvin: Sources et Evolution de sa Pensee Religieuse*. 김재성 역.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White, James F. *Protestant Worship*. 김성한 역. 『개신교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4. 논문

Blankenburg, Walter. "Church Music in Reformed Europe." *Protestant Church Music: a History*, ed. Friedrich Blume. London: Gollancz, 1975.

Bucer, Martin. "Psalter, with Complete Church Practice."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ed. Bard Thompson.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1.

Kingdon, Robert M. "The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Princeton Seminary Bulletin* 20-3 (1999).

Lecerf, Auguste. "The Liturgy of the Holy Supper at Geneva in 1542."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ed. Richard C. Ga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Luther, Martin. "An Order of Mass and Communion for the Church at Wittenberg." *Luther`s Works*. Vol. 53.

_____. "Concerning the Order of Public Worship." *Luther`s Works*. Vol. 53.

_____. "Preface to the Wittenberg Hymnal." *Luther`s Works*. Vol. 53.

- _____. "The Babylonia Captivity of the Church." *Luther`s Works*. Vol. 36.
- _____. "The Misuse of the Mass." *Luther`s Works*. Vol. 36.
- McKee, Elsie Anne.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ed. Lukas Visch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 Pasztor, Janos. "Calvin and the Renewal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The reformed world* 40-2 (June 1988).
- Vanderwilt, Jeffrey T. "John Calvin's Theology of Liturgical Song." *Christian Scholar's Review* 25-1 (September 1995).
- Whale, J. S. "Calvin." *Christian Worship: Studies in its History and Meaning*, ed. Nathaniel Mickle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Worterstorff, Nicholas. "The Reformed Liturgy."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d. Donald K. Mckim.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2.
- Zwingli, Ulrich. "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ed. Bard Thompson.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1.
- _____. "Liturgy of the Wo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ed. Bard Thompson.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1.
- _____. "The Sixty-seven Articles." *Ulrich Zwingli Selected Works*, ed. Samuel Macauley Jacks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칼빈연구』 제 3집 (2005).
- _____.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교회와신학』 제 62호 (2005. 가을).

_____.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김인수 편.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리고 신학』. 서울: 이형기교수은퇴기념논문편찬위원회, 2004.